

2018
서울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결과자료집

0258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서울문화재단 3층 Tel. 02-3290-7427 / 7428
www.sfac.or.kr | www.e-sac.or.kr

2018 서울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결과자료집

I·SEOUL·U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2018.03.31
2018.11.25
www.e-sac.or.kr
www.toyo.or.kr

2018
서울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결과자료집

서울꿈다락
2018
토요문화학교
2018.03.31
예쁜글씨
2018.11.25

www.e-sac.or.kr
www.toyo.or.kr

2018
서울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결과자료집

2018

SEOUL ARTS &
CULTURE EDUCATION
CENTER

“

꿈다락은 '나의 비밀스러운 꿈의 아지트'라는 뜻으로
예술이 펼쳐는 세상
놀이가 주는 즐거움이 가득한
학교 밖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



CONTENTS

PART 1

사업소개

- | | |
|---|-----|
| 1. 사업목적 | 013 |
| 2. 추진방향 | 013 |
| 3. 사업개요 | 013 |
| 4.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단체 공모 지원 | 013 |
| 5. 자체기획 프로그램 <여름방학 문화예술교육 축제 '예술로 바캉스'> 기획 운영 | 016 |
| 6. 교육운영단체 대상 전문가 현장컨설팅(평가) 운영 및 역량강화(네트워킹) 지원 | 019 |

PART 2

운영결과

- | | |
|--------------|-----|
| 1. 공모지원 프로그램 | 024 |
|--------------|-----|

PART 3

좌담회

- | | |
|-----------------------------|-----|
| 1. 2018 서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돌아보며 | 110 |
|-----------------------------|-----|





Seoul Foundation for Arts & Culture(SFAC)

서울문화재단은 예술가와 시민이 문화예술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사회적 우정의 장으로 서울을 꿈꿉니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 서울의 문화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예술가와 협력합니다.
예술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지원사업, 서울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예술교육사업,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문화예술의 접점을 확대해나가고자 합니다.
일상이 예술이 되고 공유를 통해 협력해가는 서울.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 미래로' 서울문화재단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서 울 문 화 재 단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예술가교사, 시민, 공간, 정보를 연결·확장하는 서울문화예술교육플랫폼

“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서울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정 받아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광역단위 문화예술교육 지원 기관입니다. 서울의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허브로서 문화예술교육 관계자(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예술교육가(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예술교육정보자료관〉 운영 등 예술교육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운영사업

서울시민예술대학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예술교육정보자료관



서울예술교육

Seoul Engaging with the Arts

“

〈서울예술교육〉은

일상 속 예술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가치가 깊어지도록 지원합니다. 예술가의 작업을 통해 시민과 만나는 예술가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합니다. 공간을 기반으로 지역이 예술가와 만나고 변화하는 예술교육을 실천합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고, 배우며, 성장하는 미적체험 예술교육을 통해 예술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예술적 상상력을 극대화한 개인의 미적 체험을 통해 감성, 인성, 창의성의 조화로운 발전, 그리고 삶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예술을 경험하면서 성장하고, 다양한 분야와 사람들이 협력하면서 예술가와 시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서울을 꿈꿉니다.

”

가르치는 예술에서, 경험하는 예술로

〈서울예술교육〉은 예술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는 미적체험 예술교육 철학과 통합·융합적 교육방법론으로 체계화된 서울형 예술교육모델입니다.

서울예술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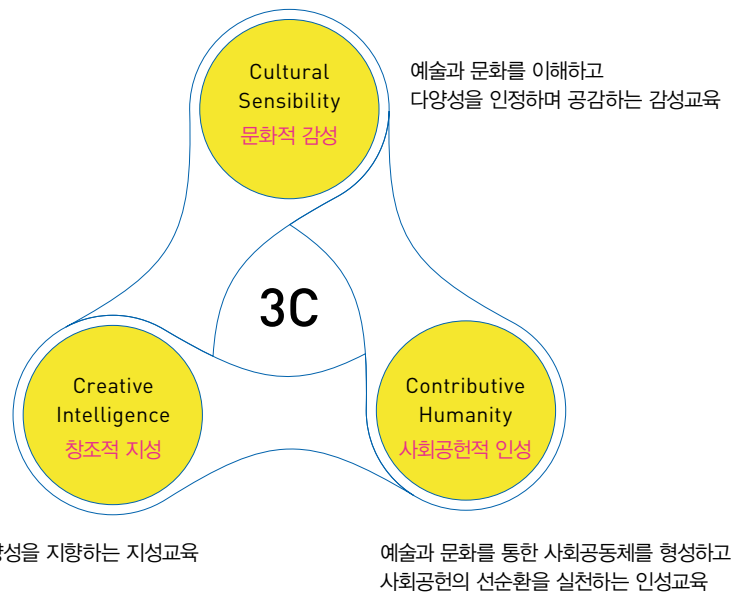
Seoul Engaging with the Arts

우리의 비전

- 서울형 학교예술교육, 사회적 예술치유 지원모델 특화 및 확산
- 사업의 지속발전 가능한 토대로서 서울형 예술교육·예술치유 전문예술가 육성
- 예술창작 활동 참여를 통한 서울 시민의 문화창조역량 강화
- 다양한 계층별 수요를 반영한 예술교육·예술치유 콘텐츠 개발 확대
- 예술교육·예술치유 공간 활성화를 기반으로 지원 생태계 활성화

우리의 지향점

- 지성
- 감성
- 인성교육(3C)



사업체계



PART 1

사업소개

1. 사업목적
2. 추진방향
3. 사업개요
4.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단체 공모 지원
5. 자체기획 프로그램 <여름방학 문화예술교육 축제 '예술로 바캉스'> 기획 운영
6. 교육운영단체 대상 전문가 현장컨설팅(평가) 운영 및 역량강화(네트워킹) 지원

013
013
013
013
016
019



토요일, 예술로 놀자!

서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2012년도부터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와 아동 및 청소년의 창의·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문화예술 활동 수요의 지속적 증대 및 건강한 주말 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말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학교 밖 전문 문화예술교육 단체(기관)에서 어린이·청소년 및 그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여 또래·가족이 함께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사업목적

- 지역 문화예술기관·단체에서 아동·청소년 및 그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학교 밖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여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하는 한편, 또래·가족과 문화예술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건전 여가문화 조성

추진방향

- 차별화된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 지역 문화공간의 대상 및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지원
- 예술가, 예술(교육)단체 전문 인력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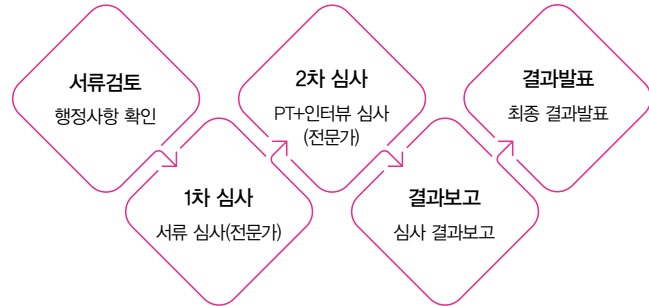
- 사업명 : 2018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사업예산 : 1,600백만원(국비 800백만원, 시비 8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교육기간 : 2018년 3월 31일(토) ~ 11월 25일(일)
- 사업내용 : 학령기 아동·청소년 및 가족 대상 토요일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단체 공모 지원
 - 자체기획 프로그램 〈여름방학 문화예술교육 축제 '예술로 바캉스'〉 기획 운영
 - 교육운영단체 대상 전문가 현장컨설팅(평가) 운영 및 역량강화(네트워킹) 지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단체 공모 지원

- 공모대상 : 문화예술교육 기획운영 역량을 가진 문화예술 기관(시설) 및 단체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공모유형

사업 유형	일반공모	기획공모	
	(A형)일반지원	(B형)콘텐츠 개발	(C형)토요캠프
사업 내용	- 여타 주말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을 활용한 장르의 다양성 촉진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운영·지원	- 프로그램 연구 및 콘텐츠 개발 후 시범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	- 또래 및 가족이(최대 50명) 함께 문화예술을 매개로 소통하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캠프 운영·지원

- 접수기간 : 2018.01.30.(화) ~ 2018.02.06.(화)
- 심사기간 : 2018.02.07.(수) ~ 2018.02.21.(수)
- 심사 및 선정절차



- 심사위원 : 김월식(무니만 커뮤니티 대표), 김혁진(모든학교 체험학습연구소 연구위원), 제한정(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겸임교수), 황하영(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김수현(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팀장)
- 심사기준 : 교육기획의 적절성, 교육내용의 우수성, 운영자원의 우수성,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사업운영 역량, 연구 계획의 적절성(※B유형만 해당)
- 선정결과

NO.	유형	단체(기관)명	프로그램명	교육대상	교육장소
1	A	고래이야기	영화를 만난 고래	초3~6	고래이야기
2	A	공공씨네	빛그림 환상극장 : 키노아이	초4~6	서서울예술교육센터
3	A	극단 그름 동·시대	괴물들이 사는 나라로	초3~4	반포종합사회복지관
4	A	극단진동	액티비티 드로잉	초3~6	방학3동 주민센터
5	A	극단 하땅세	배우의 말 - Stage on	고1~3	극단 하땅세 연습실
6	A	문화그름 노니퍼니	아빠와 함께 다가가	초1~3(가족)	도봉구민화관/노니퍼니 연습실
7	A	놀 플러스	예술정류장 소리로(路)	초1~중3	신월청소년문화센터
8	A	나나노 무브먼트	꿈-오늘을 날다	초1~6	강동유소년스포츠센터
9	A	달그락 아트 컴퍼니	드림아이 '아트칩' 달다	초3~6	남가좌2동 주민센터
10	A	예술교육창작터 달집	여기는 방방 출구는 동동	초1~3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도서관
11	A	문화예술교육 더베프	이런 氏, 저런 SEE	중1~고3	문화예술교육더베프전용교육실
12	A	도와지	오목 볼록 판화 놀이	초2~고3 (장애청소년)	돈의문박물관마을
13	A	책공작소 맘껏	생생한 자연 속 예술 놀이터	초3~6	꿈자람 작은 도서관/ 길꽃어린이도서관
14	A	문화예술공작소 매듭	예술로 만나는 나의 세계 : 경이로운 보물방	초4~중3	마을과 아이들

NO.	유형	단체(기관)명	프로그램명	교육대상	교육장소
15	A	아동청소년연극집단 무동	풀색염지 특공대	초1~2	강남구립 정다운도서관/ 강남구립 못골도서관
16	A	문화미디어 줄	우리동네 어린이 특파원	초3~6	애플망고 연습실
17	A	(주)물나무 에듀	마음의 눈 Camera eye	초3~6	녹번종합사회복지관
18	A	북(BOOK)극곰 예술여행	북극곰예술여행	초1~3	마포구립서강도서관
19	A	빌리브아트	T사건 미해결 수사반	초3~6/중1~2	동대문구민체육센터
20	A	사진 잇다	펼쳐Zine사진	중1~고3	(사)함께가는은평장애인부모회 활동실
21	A	(사)한국전통색실문양 누비보존협회	숨씨따라 숨결따라	초5~고2	색실문양누비공방
22	A	서울무용교육원	못 말리는 짱구, 춤으로 말리대!	초1~5(가족)	천호1동 주민센터
23	A	(재)성북문화재단	뮤지컬 레시피	중1~고3	성북청소년문화공유센터
24	A	소리마당	우리음악 원정대	초4~중3	서울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
25	A	예술공동체 스케네	그림책의 기적	중1~고3	삼각산어린이 도서관
26	A	문화예술공동체 신나라	OPEN YOUR SWAG	중1~고2	서울시립창동청소년수련관
27	A	아츠컴퍼니 무아	글로벌 어린이 엑스포	초4~6	초안산숲속작은도서관
28	A	아트 컴퍼니 노닐다	마음 담벼락 허물기	중1~고3	반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29	A	알트	뽕자놀이	초4~6	아름꿈도서관
30	A	서울어바웃아트센터	영화 플러스 생각발전소	초1~2(가족)	중랑구립정보도서관
31	A	교육기획 언니네책방	책방 다녀오겠습니다!	중2~고2	책방이음
32	A	(주)우드락공작소	재활용목공교실	중1~고3	(주)우드락공작소 교육센터
33	A	이심세계 비보이즈	도래문화댄스	중1~고3	투에나센츨리스튜디오
34	A	재활용공예진흥원	캐릭터 기반 재활용공예와 인형극	초1~6	언니네작은도서관
35	A	티라트(Trart)	오 마이 프렌디	초1~3(가족)	흥부네 그림책 작은도서관
36	A	(주)포토브릿지	별을 삼킨 아지트	발달장애청소년	서대문구 문화체육화관
37	A	문화예술교육연구소 플레이(PLAY)	미디어로 통	초1~6	수영산작은도서관
38	A	(사)한국코다이협회	다다목선(多多木善)	초4~고1	남가좌1동 주민센터
39	A	(재)어린이공연문화재단	빛으로 그리는 예술극장 행복한아이	초2~3/초4~5	지샘터 올림픽공원도서관
40	B	성북문화예술교육가협동조합 마을온예술	웹툰, 문학을 담다	중1~고3	성북문화재단
41	C	넙나들이	놀go! 먹go! Camp "삼시놀이"	초4~5/초6	하이서울유스호스텔
42	C	조우	뜻밖의 예술	초4~6(가족)	서울무용센터

자체기획 프로그램 <여름방학 문화예술교육 축제 '예술로 바캉스' 기획 운영

• 추진목표

-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체험 기회를 마련
- 우수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집약적으로 선보이는 문화예술교육 축제의 장을 마련
- 대내외 홍보를 통해 서울의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소개 및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행사명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X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여름방학 문화예술교육 축제 '예술로 바캉스'
- 일시 : 2018.07.27.(금) ~ 08.05.(일) 월요일 쉼, 총 9일간
- 장소 : 서서울예술교육센터(양천구 신월동 소재)
- 대상 : 아동청소년 및 가족, 일반 시민, 예술교육 관계자 등
- 주요 프로그램
 - 예술로 놀장 : 예술캠프, 서울 꿈다락 문화학교 공모 선정단체 중심 예술교육체험 18개 프로그램
 - 예술로 반짝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예술놀이캠프TA 공동연구 프로그램 3개 프로그램
 - 예술로 풍덩 : 아와 물놀이 프로그램 풍덩 놀이터
 - 기타 : 하늘을 나는 방파제 설치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예술로 놀이터, 거리공연 등
- 총 참여자 : 5,061명



• 주요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운영단체	주요장르	내용
예술캠프	꿈다락 ECO 캠프	-	캠프	일상을 벗어난 공간에서 문화예술의 가치를 경험하고 자연 속에서 예술적 경험을 확장시키는 아동캠프
예술로 놀장 프로그램	에코아트 과학수사대	빌리브아트	미술	실험과 상상놀이를 통해 생태환경의 문제를 인식하고, 예술작품 제작활동을 하는 예술과학 융합 프로그램
	북(Book)극곰 예술여행	북(Book)극곰 예술여행	연극뮤지컬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 나누며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연극, 영화, 미술, 무용, 놀이 등과 결합해 책 속의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함
	마이 판타스틱 시네마	공공씨네	영화	상상 속 소품과 의상을 만들고, 다양한 영상 기법을 활용해 아이들이 꿈꾸는 환상의 세계를 영화로 구현하는 프로그램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	시네버스	영상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면 어떤 모습일까? 영상으로 만드는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
	마음의 눈 Camera Eye	(주)물나무 예듀	사진	초상화에서 유래된 사진. 커다란 방을 사진기로 만들고, 사진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평소 보아왔던 세상이 신비로운 모습으로 재현됩니다.
	동글동글 여름 버튼만들기	-	공예/시각	원형색 종이에 사인펜과 크레용, 스탬프로 계절에 어울리는 다양한 그림과 글자를 장식해 나만의 뱃지를 만들어 가져갈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예술로 만나는 나의 세계 : 경이로운 보물방	문화예술공작소 매듭	미술	미술, 음악, 연극, 예술활동의 즐거움을 직접 경험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개성과 세계관이 담긴 테라리움 작품을 만드는 프로그램
	도서관이 살아있다	성북문화예술 교육가협동조합 마을은예술	문학	도서관이 살아있다구요? 도서관 모양의 집 화분에 식물 심기를 해봐요! 정말 도서관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홀로그램 알파가면 만들기	서울어바웃아트 센터	미술시각	낮 동안에는 햇살을 막아주고, 밤 동안에는 신나는 여름방학의 반짝반짝 빛나는 추억을 만들어줄 자기변신 디자인 안경 또는 마스크 형태의 시각예술 놀이
	자연의 연필 빛으로 놀장	(주)물나무 예듀	사진	빛과 사진 감광 기법을 이용하여 만지고 느끼고 꿈꾸는 대로 창의적 디자인을 완성해봅니다.
	기쁨의 동네북 자유의 댄스	에스콜라 알레그리아	음악, 춤	내몸의 자유를 마음껏 펼쳐보자! 함께 리듬을 뜨겁게 두드려보자! 브라질 퍼커션 오케스트라와 아프리카 만딩고 댄스
	마음공간 표현하기	예술교육창작터 달집	시각예술	즐거움 마음, 신나는 마음, 슬프거나 우울한 나의 마음을 집이라는 공간에 빔에 종이 조형으로 표현해봅니다.
	업사이클 지구를 구해줘	꿈더함	디자인/공예	리사이클보다 한단계 위의 개념인 업사이클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 (와인병 혹은 기타 잡병을 활용한 화분 만들기)
	여름과 나와 ○○와 시	넌나들이	통합	여름과 친구와 내가 만나 함께하는 시화 창작하기! 작년도 내년도 아닌 2018년도 여름에 내가 만난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시화로 완성시키는 활동
	즐거운 세계춤 이야기	아츠 커뮤니케이션21	무용	퀴즈를 통해 여러나라의 문화도 알아보고 즐거운 음악에 맞춰 민속무용도 취보는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운영단체	주요장르	내용
예술로 놀장 프로그램	상상의 여행가방을 만들자	예술과 시민사회	시각미술	우리들의 일상 속 새로움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여행가방을 만들고 특별한 상상을 담아 나만의 여행가방 짐 꾸리기
	다다목선	(사)한국코다이 협회	공예/음악	세상의 모든 소리를 나무로 풀아가는 착한 예술활동: 목공예와 음악을 융합한 프로그램으로 조롱박을 이용하여 마라카스를 만들어 보고 음악에 맞추어 연주도 해본다.
예술로 반짝 프로그램	화이트&칼라 파라다이스	김현주, 피경지	시각	공예와 한국화의 장점을 살려 소중했던 우리 가족의 '기억'의 느낌을 오색찬란한 '색'으로 표현해보고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되돌아보는 프로그램
	노래하는 별자리	김자현, 윤운상, 이혜원	시각예술, 전자음악, 연극	그림자와 함께 여름별자리 이야기를 듣고, 나만의 별자리를 만들어 종이봉투 랜턴과 오르골 악보에 그 이야기를 담아보는 통합 예술 프로그램
	너, 나 함께 그림	김재현, 신다혜	미디어, 시각예술	찍고, 긁고, 뿌리고, 칠하고, 그리자! 나만의 땅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규칙과 그림들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
예술로 풍덩 프로그램	풍덩 놀이터	-	물놀이	어린이 야외 물놀이터
상설체험 프로그램	하늘을 나는 방파제 상설전시	금보성	시각예술	금보성 작가의 작품 <방파제>와 연계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이 작품감상 교육과 함께 방파제를 실제로 만들어보는 체험형 공공미술 프로그램
	꽃과 나비와 물고기와	-	공예/시각	펠트로 된 꽃과 나비, 물고기들이 화려하게 어우러지는 자연의 풍경을 완성하는 움직임은 커뮤니티 아트
	거꾸로 수초의 숲	-	시각	수조 안에서 공중에 인조수초를 늘어뜨려 만든 숲속을 탐험하는 자유로운 놀이터
	비버의 집에 놀러오세요	-	공예/ 디자인	나무 오두막에 인공 잎사귀 냉쿨과 리사이클링한 천 조각, 나뭇가지 등으로 오두막벽을 직조하여 꾸미는 놀이터 겸 휴게공간
	나를 담는 방울방울	-	시각	참여자 스스로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비누방울을 만들어볼 수 있도록 함
	자석점묘화	-	공예/시각	대형 철판으로 구성된 벽에 다양한 색상의 원형자석으로 글자, 그림 등을 자유롭게 그려 봄
부대행사	거리공연	라퍼커션 올댓리듬 에스폴라 알레그리아	공연	타악(라퍼커션) 거리공연(에스폴라알레그리아) 탭댄스(올댓리듬)



교육운영단체 대상 전문가 현장컨설팅(평가) 운영 및 역량강화(네트워킹) 지원

1. 문화예술교육 공모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 일시 : 2018.03.09.(금) 10:00~17:00
- 장소 : 페럼타워 페럼홀
- 대상 : 2018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공모 최종선정단체 및 기관
- 세부일정

시 작	프로그램 내용	세부내용	진행
9:00	참가자 등록	참가자 확인, 자료집 배포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0:00	운영가이드 안내	지원금 집행요령 및 운영가이드 안내	김윤경(사업담당)
11:00	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단체가 숙지해야 할 안전 규정 및 대처방안 안내	변기용(남산예술센터 시설감독)
12:00	e나라도움 교육	e나라도움 시스템 교육 우리은행 통장 개설 지원 단체별 협약체결 진행	이선희(경제녀머교육센터 대표)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뒷정리	뒷정리 및 철수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2. 문화예술교육 공모 선정단체 기획워크숍(컨설팅)

- 일시 : 2018.03.07.(수)/03.08.(목)/03.10.(토)
- 장소 : 마이크임팩트(종로구 우정국로2길 21 13층)
- 대상 : 2018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공모 최종선정단체 및 기관 실무자 등 주요 담당자
- 컨설팅위원 : 김월식(무늬만 커뮤니티 대표), 김혁진(모든학교 체험학습연구소 연구위원),
제환정(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겸임교수)
- 주요내용 :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준비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 중심으로 컨설팅 진행
- 세부일정

시간	3월 7일(수)		3월 8일(목)	3월 10일(토)	
	김월식	김혁진	김월식	김혁진	제환정
10:00	(재)성북문화재단	티라트(Trart)	(주)포토브릿지	소리마당	서울무용교육원
~	문화미디어 줄	(사)한국코다이협회	(주)물나무에듀	노니퍼니	예술교육창작터 달집
17:00	사진 잇다	서울어바웃아트센터	극단 하명세	아츠컴퍼니 무아	아트컴퍼니 노닐다

시간	3월 7일(수)		3월 8일(목)	3월 10일(토)	
	김월식	김혁진	김월식	김혁진	제한정
10:00 ~ 17:00	한국전통색실문양 누비보존협회	도와지	극단진동	북(800K)극곰 예술여행	니나노무브먼트
	고래이야기	극단 그룹 동·시대	알트	교육기획 언니네책방	이십세기 비보이즈
	(주)우드락공작소	빌리브아트	문화예술 교육연구소 플레이(PLAY)	놀 플러스	아동청소년 연극집단 무동
	문화예술교육 더베프	(재)어린이공연 문화재단 행복한아이	넘나들이	성북문화예술 교육가협동조합 마을온예술	문화예술공동체 신나다
	공공씨네	책공작소 맘껏		조우	달그락 아트 컴퍼니
		재활용공예진흥원			문화예술공작소 매듭
		예술공동체 스케네			

3. 문화예술교육 공모 선정단체 상반기 현장컨설팅

- 운영기간 : 2018년 05월 ~ 08월
- 평가위원 : 김혁진, 제한정, 윤동열, 현경채, 박주희, 임상빈
- 운영방법 : 평가위원 및 단체 간 매칭을 통한 교육현장 방문 및 컨설팅
- 세부일정

구분		김혁진	임상빈	제한정	현경채	박주희	윤동열
신규 단체	1	교육기획 언니네책방	도와지	달그락 아트 컴퍼니	노니퍼니	(재)어린이 공연문화재단 행복한아이	사진 잇다
		6/23(토)	6/23(토)	6/16(토)	6/16(토)	6/23(토)	6/23(토)
	2	(주)우드락 공작소	문화예술 공작소 매듭	책공작소 맘껏	놀 플러스	재활용 공예진흥원	(주)포토브릿지
		7/8(일)	6/30(토)	6/23(토)	6/23(토)	7/7(토)	6/30(토)
신규 단체	3	문화예술교육 연구소 플레이(PLAY)	티라트(Trart)	문화예술 공동체 신나다			
		7/7(토)	7/21(토)	7/7(토)			
	4	성북문화예술 교육가협동조합 마을온예술	예술공동체 스케네	빌리브아트			
		7/11(수)	8/11(토)	7/14(토)			

4. 문화예술교육 공모 선정단체 회계·정산 역량강화 워크숍 및 간담회

- 일시 : 2018.09.04.(화) 10:00~14:00
- 장소 : 내일 캠퍼스 종로 지하 1층 파고다 이벤트홀
- 참석자 :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사업 선정단체 교육운영인력(대표자, 기획자, 실무자 등)
- 세부일정

시간	내용	진행
09:30~10:00	참가자 등록	사업담당자
10:00~11:30	지원사업 회계·정산 강의 및 Q&A 진행 - 보조금 집행 지침 및 유의사항 안내 - 원천징수 및 부가가치세의 이해 등	허웅 회계사 (이정 회계법인)
11:30~13:00	노무관련 강의 및 Q&A 진행 및 - 4대보험, 일용근로 등 노무 관련 기초 이해	김성중 노무사 (노무법인 유엔)
13:00~14:00	주요 사항 논의 및 간담회 - 상반기 사업 운영 이슈 논의 - 하반기 사업 운영방향 전달 및 의견논의	사업담당자

5. 문화예술교육 공모 선정단체 역량강화 워크숍 – “易地思之, 입장바꿔 생각해보”

- 일시 : 2018.10.19.(금) 15:00~19:30
- 장소 : 남산예술센터 예술교육관, 서울예대 동랑센터, 스페이스아트1
- 참여자 :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교육운영단체 관계자(강사 및 기획자 등) 총 63명
- 그룹별 세부 운영 내역

구분	1	2	3	4
장르	통합	무용	시각	연극
프로그램명	마음을 읽는 예술	나를 찾아가는 시간, 우리 이렇게 춤춰요!	Back to School	나에게 한걸음, 앞으로 한발짝
모더 레이터	김혁진 모든학교 체험학습 연구소 연구위원	제한정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겸임교수	백 령 경희대학교 문화예술 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박주희 국민대 겸임교수, 위스콘신대학 연극학 박사
교육 시연	허니비(캠블러크루) (참여강사 : 3명)	아츠커뮤니케이션21 (참여강사 : 2명)	문화미디어 줄 (참여강사 : 2명)	문화예술교육 더베프 (참여강사 : 3명)
장소	남산예술센터 예술교육관(1F)	서울예대동랑센터 심재순관(2F)	서울예대동랑센터 심재순관(3F)	스페이스아트1 (총무로)

+

PART 2

운영결과

1. 공모지원 프로그램

0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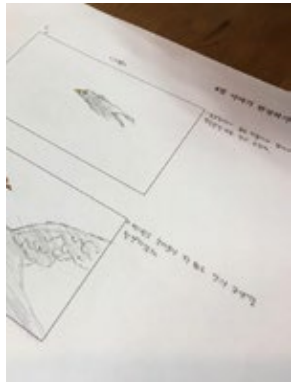
고래 이야기

어린이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동심어린 세계를 영화로,
또래와 함께 만드는 영상제작 워크숍

영화를 만난 고래

“ 단체소개 ”

‘고래이야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으로, 순수하게 주민들의 후원과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 곳이다. 우리 아이들이 일방적인 경쟁교육에서 벗어나 함께 어울리며 자라나는 공간이며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어린이와 어른 모두의 삶을 만들어어나가는 곳이다. 또한 고래이야기는 마을을 연계하는 사업, 자체 공동육아 사업, 혁신교육지구 사업, 동아리 활동 등을 진행하면서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교육기간

2018년 4월 7일(토) ~ 11월 11일(토) / 10:00 ~ 13:00

1기 : 4월 7일 ~ 6월 30일 / 2기 : 8월 11일 ~ 11월 11일

교육장소

고래이야기(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57 효창맨션 1층)

교육대상

초등학교 3 ~ 6학년 20명 내외(총 40명)

교육강사

장수영(주강사), 윤심경(주강사), 허미영(주강사), 김소라(보조강사),
용은중(기획자)



기획의도

학교 밖에서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이 아닌 아이들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하여 만들어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

이론보다 실습 위주의 수업으로 문화 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기부여와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여 아이들이 즐겁고 의미 있는
토요일 만들기

협동 작업을 통해 또래와의 관계 형성, 카메라 조작 등 활동 위주
의 교육 진행

미디어 창작의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올바른 미디어 사용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기

주요특징

영화 만들기를 통해 아이들의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협
동심 기르기

제작 실습 위주의 흥미롭고 즐거운 수업



공공 씨네

영화의 눈으로 상상하고 만드는 환상의 영화, 환상의 극장
빛그림 환상극장
: 키노아이(KINO-EYE)

“ 단체소개

‘공공씨네’는 단순한 영상체험교육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추구하며, 리터러시 교육을 포함한 통합 예술 교육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교안 및 교수법, 콘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영화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기간

2018년 8월 3일(토) ~ 11월 24일(일) 14:00 ~ 17:00
 1기 : 3월 31일 ~ 7월 21일 / 2기 : 8월 11일 ~ 11월 24일

교육장소

서울예술교육센터(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64길 2)

교육대상

초등학교 4 ~ 6학년 20명 내외(총 40명)

교육강사

정의행(주강사/체험놀이), 이해원(주강사/영화제작),
 조항미(주강사/공간극장), 이승용(주강사/스토리), 정원철(기획자)



기획의도

체험과 놀이

결과물보다는 참여자의 예술적 경험으로서 교육

상상과 구현

혼자 하는 창작이 아닌 느리더라도 함께 꿈꾸는 영화 만들기

창작과 소통

영상 매체의 일방적인 소비자가 아닌 창작과 소통의 주체되기

시선과 공간

다양한 시선의 가능성으로 공간을 바라보는 상상력

행동과 감정

카메라 뒤에 숨지 않고 주인공이 되어 몸으로 상상하고 표현하는 이야기

주요특징

다양한 예술 장르를 통한 제한 없는

상상력의 구현

영상, 미디어아트(상영), 설치미술, 움직임, 소리 등 다양한 예술장르의 체험 및 놀이 활동을 통해 자유롭게 제약 없는 상상력을 직접 구현

다양한 기법과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

평소에 보던 시각이 아닌, 다양한 높이와 감각의 시선을 경험하고 이를 다양한 미디어 기법과 조합하는 과정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다양성 전달

협업과 소통을 통한 관계

토론과 협업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고, 직접 만든 극장에서 이루어지는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예술 경험을 나누는 관계를 만들

극단 그룹 동·시대

교육연극을 통해 몸소 익히는 협력-전면적 발달 프로그램
‘괴물들이 사는 나라’로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

“ 단체소개

‘극단 그룹 동·시대’는 1998년 창단하여 정통 연극을 포함한 다양한 장르에서 전방위적으로 창작활동을 해왔다. 2013년부터는 서초구를 주요 활동 거점으로 두고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2015년부터 인력을 지원한 참빛나 네트워크에서 문화예술 부분을 담당하며 지역의 청소년들과 만나고 있다. 2016년 서초문화재단이 주관한 ‘서리풀 축제’에서 ‘연극축제’를 ‘씨어터송’과 함께 운영하면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



교육기간

2018년 4월 7일(토) ~ 9월 14일(토) 10:00 ~ 13:00

교육장소

반포 종합사회복지관(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33길 22)

교육대상

초등학교 3 ~ 4학년 20명 내외(총 20명)

교육강사

이미라(주강사), 김정은(주강사), 김진솔(보조강사), 이다영(보조강사), 장윤정(보조강사), 김현진(기획자), 고경인(교육감독)



기획의도

‘협력’과 ‘과정 중심’의 프로그램

‘결과’보다 ‘협력’과 ‘과정 중심’의 전면적 발달을 교육의 지표로 삼음

총체적 교육의 도구, 스토리텔링, 서사

모든 과정은 샌닥의 동화 <괴물들이 사는 나라>와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참여자는 샌닥의 서사를 바탕으로 인물을 창조하고 상상의 공간을 현실 속에 불러냄

주요특징

예술적 기량을 높이기 위한 수업은 지양하고 참여자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자의 창의적 사고 능력을 키움

모든 수업이 하나의 완결성을 가지는 서사적 구조로 이루어져 수업에 대한 몰입도가 높으며 따라서 만족도가 높음

‘참여자-강사-전문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수업을 수정하고 보완함

극단 진동

즉흥적인 시각미술과 퍼포먼스를 통해
공감각을 일깨우는 통합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시간을 그리다
‘액티비티 드로잉 (Activity Drawing)’

“ 단체소개

‘극단 진동’은 비연극인들과의 교육연극 작업을 10년간 꾸준히 진행했다. 기성연극이나 성인연극을 모방하는 활동이 아닌 놀이와 즉흥극을 중심으로 하는 재밌는 연극활동으로 삶의 대안을 찾아간다. 교육활동을 통해 표출된 참가자들의 일상과 미래를 전문 공연작품으로 재창작하고 다시 이 작품을 통해 교육활동의 재료로 활용하는 순환적 연계활동을 진행한다.



교육기간

2018년 4월 7일(토) ~ 11월 24일(토) 09:00 ~ 12:00
1기 : 4월 7일 ~ 7월 21일 / 2기 : 8월 18일 ~ 11월 24일

교육장소

방학3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 94)

교육대상

초등학교 3 ~ 6학년 20명 내외(총 40명)

교육강사

정희영(주강사), 박선옥(주강사), 이연우(보조강사), 김보라(보조강사), 박수정(기획자)



기획의도

시각적 감각을 기반으로 퍼포먼스를 결합한 창의적인 통합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표현을 통한 잠재적 창의성과 감성 개발

타인 앞에 자신을 보임으로써 자신감 향상 및 긍정적인 에너지 발산

상상력으로 일상이 예술로, 예술이 일상이 되기

주요특징

연극적인 요소와 미술이 만난 통합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극적 기법으로 서로 간의 관계를 맺고 마음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심리적 친밀감과 안정감을 느끼고 몸의 감각을 깨워, 다시금 미술활동으로 전환함

일상을 예술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즉흥적인 느낌을 공감각적으로 풀어내어 창의적인 상상력을 증폭시키며, 이러한 새로운 예술활동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변화함



극단 하땅세

청소년이 공연예술관련 학과로의 진로희망을
구체적으로 실현해보는 프로그램

배우의 말 - Stage On

“ 단체소개

‘극단 하땅세’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한 공연활동과 교육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한 역량을 가진 단체이다. 총 20명의 상주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극 및 청소년극의 지속적인 창작 개발은 교육프로그램사업과 연계되어 상상력 넘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유리한 장점으로 작용하며, 이를 바탕으로 심화된 공연문화예술교육의 진행을 가능케 한다.



교육기간

2018년 4월 7일(토) ~ 11월 24일(토) 10:00 ~ 13:00

1기 : 4월 7일 ~ 7월 28일 / 2기 : 8월 4일 ~ 11월 17일

교육장소

극단 하땅세 연습실(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4길 44)

교육대상

고등학생 20명 내외(총 40명)

교육강사

권제연(주강사), 김지혜(주강사), 김채연(보조강사), 이주광(보조강사), 고은별(기획자), 장건재(특강강사)



기획의도

공연예술관련 학과에 대한 적성 및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

공연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청소년에게 매주 한 번 학업의 무게를 벗어나 자신의 끼를 분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국내외 교육프로그램 진행 경험을 기반으로 공연문화예술 활동의 관심도를 높이고, 나아가 심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스스로의 성취감을 고취

주요특징

몸을 적극적으로 훈련하며 오감을 깨움

대사뿐 아니라 배우의 몸, 표정까지 ‘배우의 말’로 포함되며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배우의 말’을 실연함

함께 만든 창작 대본으로, 미니공연을 발표함으로써 공연문화예술에 대해 경험하고 이해도를 높임



넘나들이

삼시(三時)에 놀이터를 디자인, 창작, 체험하며
자신의 예술성을 발현하는 프로그램

놀go!먹go! Camp “삼시놀끼”

“ 단체소개

‘넘나들이’는 현재 연극놀이+시각 장르의 어린이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팀원들끼리 상상력 훈련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예술가이자 예술교육가인 TA로 강사풀이 구성되어 있어 프로그램 내에서 학습 참여자에게 실제로 공연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공연을 발문으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이 넘나들이만의 큰 장점이자 특징이다.

”



교육기간

2018년 8월 21일(화) ~ 8월 24일(금) / 10:00 ~ 익일 17:00
1기 : 8월 21일 ~ 8월 22일 / 2기 : 8월 23일 ~ 8월 24일

교육장소

하이서울유스호스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교육대상

초등학교 4 ~ 6학년 24명 내외(총 48명)

교육강사

강지윤, 한해주, 이은주, 고유진, 신봉수, 배정은, 오미란, 강지선,
송지훈, 이창훈, 서린, 박수연



기획의도

평범한 공간을 예술놀이터로 탈바꿈시키는 과정 속에서 어린이들이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여 상상놀이터를 현실화하는 예술창작 기회를 제공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캠프 프로그램을 통해 제도화된 교육 속 아이들에게 상상의 날개를 달고 개개인의 고유한 개성을 표현하여, 협동학습 과정 속에서 개인의 의사를 존중받는 환경을 제공

주요특징

주제와 과제를 참여자들에게 제시하고, 공동체가 문제해결과정을 거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예술놀이터를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어 그곳에서 놀이를 경험



문화그룹 노니퍼니

아빠와 아이가 함께 즐거운 토요일,
두드림으로 하나되는 우리 가족!

아빠와 함께 다가다가

“ 단체소개

‘문화그룹 노니퍼니’는 다양한 강습 형태 유지 및 소외계층 예술교육을 통해 문화예술의 보편화에 힘쓰고 있으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문화로의 예술을 지향하고 있다. 단순 기능형 수업에서 탈피하여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통해 사회와 문화, 감정이 함께 들어가 수강생의 감정을 컨트롤 할 수 있게 한다.



교육기간

2018년 4월 7일(토) ~ 11월 17일(일) / 10:00 ~ 13:00
1기 : 4월 7일 ~ 6월 16일 / 2기 : 7월 14일 ~ 10월 13일 /
3기 : 7월 28일 ~ 10월 6일

교육장소

도봉구민회관(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552)
노니퍼니 연습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145길 19-4)

교육대상

초등학교 1 ~ 3학년과 아빠, 30명 내외(총 60명)

교육강사

김현수(주강사), 윤익상(주강사), 배승찬(보조강사), 김형태(보조강사),
곽재민(기획자), 강지영(특강강사)



기획의도

아빠와 아이의 관계를 음악을 통해 함께 즐기고
해소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고자 함

아이와 아빠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 음
악, 악기 그리고 하모니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을 통해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함께 생각하고 고
민해서 해결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행동들은 아이와 아빠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임

주요특징

아이와 함께 만들어 가는 소리 탐색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나오고, 주변을 탐색하면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타악의 특성을
이해하고 주변의 사물을 활용하여 표현하면서
다양한 소리와 반응에 대해 알 수 있음

마지막 시간 작은 음악회를 경험함으로써 자신
감을 얻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에 대해 탐
색하여 탐구능력과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
점을 발견할 수 있음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다가다가를 활용
하여 매 주 다른 활동을 하며 아빠와 아이가 서
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줌

놀 플러스 NOL PLUS+

예술정류장을 찾아 떠나는 소리로(路) 여행

예술정류장 소리로(路)

“ 단체소개

‘놀 플러스 Nol Plus +’는 전국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양천구 청소년교육문화복지협력을 위해 20개 기관과 협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신월청소년문화센터 기부, 나눔, 결연 협약을 진행했다. 또한 구립 청소년시설 우수프로그램 평가에서는 “가족정서 함양활동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교육기간

2018년 4월 14일(토) ~ 11월 10일(일) / 10:00 ~ 13:00
1기 : 4월 14일 ~ 7월 21일 / 2기 : 8월 11일 ~ 11월 21일

교육장소

신월청소년문화센터(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 3동 150-3)

교육대상

초등학생·중학생 20명 내외(총 40명)

교육강사

소경진(주강사), 강민지(주강사), 윤제호(주강사), 최용석(주강사),
곽소민(보조강사), 김민수(기획자)



기획의도

‘소리는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참가자들과 함께 일상 속 공간들을 탐험하고, 센터 인근 마을 공간에 어울리는 오디오가이드와 음악영상을 제작하여 QR코드현판으로 남김

평소에 익숙해서 느끼지 못 한 일상의 소리라는 키워드와 함께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 안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음악과 영상으로 만들



주요특징

전통연희

전통형태의 가면과 전통 연희적 표현과 접목시킨 악기를 제작하여 콘서트라마에 활용

미디어활용

오디오가이드와 영상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공간에서 느낀 감정을 QR영상으로 제작

콘서트라마

참가자들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스토리를 구성하고, 이를 테마별 공간을 거닐며 펼쳐는 한 편의 골목길 콘서트라마(콘서트 + 드라마)로 완성

인문학적인 질문

인문학 강사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만남의 시간을 통해 일상적인 공간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개개인이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진행



니나노 무브먼트

아동과 가족이 뜻밖의 예술을 경험하는
미술+무용+음악 형태의 가족 예술캠프

꿈 - 오늘을 날다

“ 단체소개

'니나노 무브먼트'는 힙합과 현대무용을 융합한 움직임을 표현하는 단체로 2008년 '신슬프로젝트'에서 시작되었다. 2014년에는 판타지적이고 다채로운 무대공간 확장 및 활용을 위해 에어리얼 실크를 도입하였다.



교육기간

2018년 3월 31일(토) ~ 11월 17일(토) / 15:00 ~ 18:00
1기 : 3월 31일 ~ 6월 9일 / 2기 : 6월 23일 ~ 8월 25일 /
3기 : 9월 8일 ~ 11월 17일

교육장소

강동유소년스포츠허브(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12길 60)

교육대상

초등학교 1 ~ 6학년 20명 내외(총 60명)

교육강사

유보미(주강사), 이주원(주강사), 박희경(주강사), 김라미(주강사),
김광희(주강사), 이선영(주강사), 전경희(보조강사), 이선혜(보조강사),
유진아(보조강사), 안태경(보조강사), 신슬(기획자)



기획의도

플라잉요가는 해먹이라는 천을 이용해 몸을 공중에 띄워 다채로운 움직임을 만드는데 2차원적인 생활습관에서 3차원적 시야경험을 하고 열린 몸과 마음을 경험할 수 있음

프로그램 대상자는 경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함

개방적 상태의 움직임을 통해 스스로 움직임을 선택하고 개선하여 자존감을 높임

고립된 인지적 습관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시야 경험에서 오는 창의성을 자연스럽게 습득하여 키우고 함께하는 과정에서 사회성과 협동심을 키움

주요특징

해먹을 이용한 공중예술임

공간지각능력, 창의력, 협동심 향상,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줌

스스로 이해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참여자 모두 함께 루틴을 완성하고,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새로운 경험과 생각의 기회를 줌



달그락 아트 컴퍼니

아동이 무용과 영상으로 손안의 세상을 벗어나
예술로 즐기며 나를 재발견하는 통합예술프로그램
드림아이 '아트칩' 달다!

“ 단체소개

달그락 아트 컴퍼니는 공연 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안무가 및 무용수, 교육현장에 다양한 대상의 학습자와 더불어 예술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예술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일상에서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로, 타 장르와의 융합 및 다양한 예술체험 활동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예술 프로젝트가 가능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



교육기간

2018년 4월 7일(토) ~ 11월 24일(토) / 10:00 ~ 13:00
1기 : 4월 7일 ~ 7월 14일 / 2기 : 8월 11일 ~ 11월 24일

교육장소

남가좌2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 10길 28)

교육대상

초등학교 3 ~ 6학년 20명 내외(총 40명)

교육강사

정경선(주강사), 장다나(주강사), 이지은(보조강사), 김미애(기획자)



기획의도

디지털 문화가 발달되면서 무엇보다 두드러진 변화는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

아동들에게 손안의 세상에서 벗어나 일상 속의 공간에서 나를 재발견하고, 다양한 감각 자극들을 통해 나 자신과 주위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

몸의 언어(무용)로 표현하고, 이를 시각적인 언어(영상)로 재해석함으로써 일상 속 익숙한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

주요특징

무용과 영상이 결합된 과정 중심 통합예술프로그램

또래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영상제작활동 속 공감대 형성

움직임을 매개로 아동들의 무한한 가능성과 자신의 고유한 색 발산의 계기 마련

예술교육 창작터 달집

‘공간과 움직임’ 키워드로 예술가와 예술작품을 체험해 보고, 자신만의 생각으로 새롭게 표현해보는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의 통합예술(무용, 시각예술) 교육 프로그램

여기는 방방 춤추는 동동

“ 단체소개

‘예술교육창작터 달집’은 모든 사람이 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을 통해 나의 삶을 새롭게 발견하고 바라보는 시각을 열어주기 위해 설립되었다. 무용, 연극, 시각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대상별, 맞춤형 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사람들의 꿈이 행동으로 나타나듯, 예술이 저마다의 꿈을 펼치고 보다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데 주역이 되길 기대한다.



교육기간

2018년 3월 31일(토) ~ 11월 10일(토) / 10:00 ~ 13:00
1기 : 3월 31일 ~ 6월 9일 / 2기 : 6월 23일 ~ 8월 25일 /
3기 : 9월 1일 ~ 11월 10일

교육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도서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9길 7)

교육대상

초등학교 1 ~ 3학년 20명 내외(총 60명)

교육강사

이세라(주강사), 박아름(주강사), 이겨려(주강사), 유수민(보조강사),
홍다인(보조강사), 박기량(보조강사), 김은정(기획자)



기획의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소소한 주변의 공간과 평범한 움직임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공간과 움직임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질 때 새롭게 반응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됨

학습자로 하여금 공간과 움직임의 상호작용과 소통을 경험하도록 하여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새롭고 즐거운지 깨닫도록 하고자 함

‘공간과 움직임’, 이 둘과 새롭게 관계 맺기를 시도해보는 과정들은 세상과 소통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다가올 수 있음



주요특징

‘공간과 움직임’을 주제로 한 통합예술교육으로 시각예술과 무용 두 분야에서 접근

학습방법으로는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다양한 예술작품과 놀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문화예술교육 더베프

청소년들이 연극·영상 등의 매체를 통해
세상의 다양한 '시선'을 탐구하고 표현하는 프로그램

**청소년 복합 미디어 극장
'이런 氏, 저런 SEE'**

“ 단체소개

'문화예술교육 더베프'는 1997년 발족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비영리 문화단체이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문화 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어린이부터 다양한 계층까지 조직적인 문화복지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문화예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구성원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와 보급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



교육기간

2018년 3월 31일(토) ~ 9월 22일(토) / 10:00 ~ 13:00

1기 : 3월 31일 ~ 9월 22일

교육장소

문화예술교육 더베프 전용 교육실(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07 2층)

교육대상

중·고등학생 20명 내외(총 20명)

교육강사

한지혜(주강사), 김보희(주강사), 송재생(보조강사), 이수경(기획자),
고두현(특강강사), 송아름(특강강사)

기획의도

다양한 예술장르 속에서 시각예술인 영상, 사진과 종합예술인 연극을 흥미 있게 연계하여 '타인의 시선'에 대한 올바른 접근과 탐구를 경험하고 표현하여 고른 성장 영양소가 되고자 함

사회속의 다양한 군상들, 그들의 다양한 시선을 탐구하고 진정한 '나',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나'를 찾아볼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자 함

청소년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인식을 다른 세대와 공유함으로써 공감을 유도하고 세대 간의 이해를 돕는 기회를 제공



주요특징

'시선'이라는 주제 안에서 청소년 개개인이 경험하고 고민하는 이야기를 교육연극 활동으로 이끌어내고, 그것을 플레이백 시어터 활동으로 확장시켜 공감대를 형성

활동을 통해 느낀 느낌이나 기록, 충동 등을 다양한 미디어로 시각화하고 전시, 공연으로 연결

전시, 공연을 통해 다양한 세대와 만나 청소년의 진솔한 모습, 다양한 욕구들을 객관화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



圖와知 (도와지)

장애청소년이 재미있는 판화놀이를 통해
또래·가족 간 나눔과 소통을 경험하는 프로그램

오목 볼록 판화 놀이

“ 단체소개

‘圖와知(도와지)’는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관련 교육 활동에 주력하여, 문화예술 소외계층인 장애청소년들의 잠재적인 예술적 소질을 집중적으로 개발·발달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장애청소년 대상으로 문화예술 관련 교육에 집중하여 장애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를 유도하고 나아가 장애 예술인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회 및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교육기간

2018년 4월 7일(토) ~ 11월 17일(토) / 10:00 ~ 13:00
1기 : 4월 7일 ~ 7월 7일 / 2기 : 8월 25일 ~ 11월 17일

교육장소

돈의문박물관마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송원길 2)

교육대상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장애청소년) 12명 내외(총 24명)

교육강사

이재순(주강사), 김경민(보조강사), 박혜민(보조강사), 성현석(기획자), 안동규(안전관리 및 활동보조)



기획의도

장애청소년들은 비장애청소년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놀이활동에 취약하며 또래·가족이 함께 문화예술을 매개로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놀이문화가 매우 부족한 상황

따라서 장애청소년들에게는 놀이와 힐링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이나 교육이 필요

장애청소년들이 다양한 판화놀이를 통해 또래·가족 간 소통을 경험하게 하고 판화 기법과 인쇄 기술을 접목한 생활미술 작품을 제작하여 또래나 가족 간의 나눔을 통해 소통의 기회를 제공

주요특징

조각도가 필요 없는 다양한 판화 체험을 통해 판화의 특징과 종류에 대한 이해

볼록판화(그림 인쇄, 도장), 오목판화(지폐·상표 인쇄), 공판화(웃감 인쇄), 평판화(신문책 인쇄) 등에 활용되는 실용미술에 대한 이해

판화 기법을 활용한 실용 작품(티셔츠 및 에코백, 달력 등)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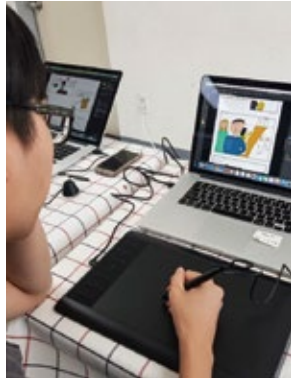
제작된 실용 작품을 또래 친구 및 가족과 나누며 소통의 기회를 마련

성북문화예술교육가 협동조합 마을온예술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콘텐츠를 통한 건강한 또래 문화 창출
웹툰, 문학을 담다

“ 단체소개

‘성북문화예술교육가협동조합 마을온예술’은 성북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모여 만든 단체이다. 인문, 연극, 음악, 과학 등 다양한 장르를 결합하고 새로운 통합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여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성북교육지원청과의 협치를 통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교육기간

2018년 7월 21일(토) ~ 8월 25일(토)

교육장소

성북문화재단(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 12길 4 시네마빌딩)

교육대상

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2학년 20명 내외(총 20명)

교육강사

김가희(주강사), 김명진(주강사), 안선우(주강사),
손무연(행정 담당자), 남경순(보조강사)



기획의도

기술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문학에서 시작하고 웹툰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다양한 문학 작품을 탐색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최종적으로 나의 콘텐츠를 만들어보고자 함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일은 미래의 만화 시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건강한 또래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임

주요특징

문학 작품을 탐색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나만의 독특한 콘텐츠를 만들어봄

탐색한 문학 작품을 통해 창작 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 다양한 소재 발견, 사유의 확장을 경험할 수 있음

완성된 웹툰을 포털 사이트에 공유함으로써 콘텐츠 완성에 대한 성취감, 더 나은 콘텐츠 완성을 위한 계기가 되어줄 것임



책공작소 맘껏

자연 놀이를 통해 미술의 조형요소를 배우고
환경과 함께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가치를 경험

생생한 자연 속 예술 놀이터

“ 단체소개

‘책공작소 맘껏’은 ‘그림책 읽어주기’를 기반으로 미술, 원예, 독서 후 활동 등 다양한 작업을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 강사들이 상호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함께 통합 프로그램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다각적이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이들과 만나고 특히 교육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대상의 아이들과 부모들을 만나면서 ‘책공작소 맘껏’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다.



교육기간

2018년 3월 31일(토) ~ 11월 24일(토) / 10:00 ~ 13:00
1기 : 3월 31일 ~ 7월 14일 / 2기 : 8월 11일 ~ 11월 24일

교육장소

꿈자람 작은 도서관(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로21길 4)
길꽃어린이도서관(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24길 5)

교육대상

초등학교 3 ~ 6학년 20명 내외(총 40명)

교육강사

박성호(주강사), 이호상(주강사), 서민수(보조강사), 이태용(기획자)

기획의도

자연을 경험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자신이 사는 환경에서도 자연과 생명을 경험할 수 있음

식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연의 환경 요소를 알아보고 그 안에서 미적인 조형요소를 발견할 수 있으며 미술활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

초등학생들의 미적 감수성을 키우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함께 지켜나가야 하는 공통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음

자연을 도구로 미술 작품을 만들 수 있고 함께 놀이를 하는 즐거움을 알 수 있음

미술의 조형요소를 자연 속에서 체험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음



주요특징

자연을 통한 미술의 조형요소를 발견하고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미적 감수성을 키움

항상 접해오던 자연물을 예술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을 경험할 수 있음

오감을 이용한 자연에 대한 관찰을 통해 자연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인간과 자연이 상호작용하여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음



문화예술 공작소 매듭

청소년이 미술, 음악, 연극 활동을 통해 자신을 탐색하고 자신의 개성과 세계관이 담긴 통합예술작품을 만드는 예술 교육 프로그램

예술로 만나는 나의 세계 : 경이로운 보물방

“ 단체소개

‘문화예술공작소 매듭’은 일상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고 그를 통해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시작되었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과 예술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예술과 사회의 연결고리를, 나아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 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연결고리, 매듭의 역할을 지향한다.”



교육기간

2018년 4월 7일(토) ~ 11월 24일(토) / 10:00 ~ 13:00

1기 : 4월 7일 ~ 7월 14일 / 2기 : 8월 25일 ~ 11월 24일

교육장소

마을과 아이들(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역로 19, 3층 좌)

교육대상

초등학교 4 ~ 6학년, 중학교 1 ~ 3학년 20명 내외(총 40명)

교육강사

김문성(주강사), 윤혜정(주강사), 정수연(주강사), 장동녕(보조강사)



기획의도

자신을 돌아보고 구체적으로 미래를 설계해보며 자신이 예술 활동의 주체가 되어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고유한 가치를 실현코자 함

학교 밖에서 보내는 주말시간을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표현하고 또래와의 예술 교감으로 고민과 꿈의 이야기를 소통하도록 유도해 건강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나와 타인, 사회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표현하며 고민과 그 해결책을 찾아봄으로써 지역의 또래집단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부족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자 함

주요특징

미술, 음악, 연극의 기초활동과 감상으로 어렵게 여겨지던 예술과 가까워지는 기회

선, 색, 소리를 다루고 표현하기, 대화와 토론으로 표현하기 등을 통해 친숙해진 예술활동을 자신의 개성과 꿈을 담은 “경이로운 보물방” 통합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보는 창작의 과정

자신만의 작품을 친구들과 함께 전시와 공연으로 나누어보는 감상의 즐거움

다양한 예술활동으로 자신의 취향과 개성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며 또래집단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기회 제공

아동청소년 연극집단

무동

초등 저학년 어린이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풀색엄지 특공대가 되어 꽃이 필요한 곳에 꽃을 피우는 과정 중심 연극놀이
풀색엄지 특공대

“
단체소개

‘아동청소년연극집단 무동’은 전문연극놀이 및 아동극단체다. 비전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꾸준한 개발 및 실행이며, 최소 10년 이상의 현장 경험과 자체의 연극놀이 레퍼토리를 기반으로 어린이와 함께하는 연극놀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다.



교육기간

2018년 4월 7일(토) ~ 11월 18일(일) / 13:30 ~ 16:30
1기 : 4월 7일 ~ 7월 14일 / 2기 : 8월 12일 ~ 11월 18일

교육장소

강남구립 정다운도서관(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67길 11)
강남구립 못골도서관(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16)

교육대상

초등학교 1~2학년 20명 내외(총 40명)

교육강사

엄문용(주강사/프로그램 개발), 강경선(주강사), 박영(주강사),
김정연(보조강사), 박훈광(보조강사), 김예지(기획자), 송기조(특강강사)



기획의도

스스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저학년 초등학생들에게 이런 활동은 자신들만의 비밀이자 자랑거리가 될 수 있으며 연극놀이 활동에 동력이 되어 줄 것

성장해 나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드라마를 통해 은유적인 방식으로 접하고 마음의 씨앗으로 간직할 수 있는 기회

다양한 오브제와 극적 장치들을 사용하여 참여자들의 연극적 상상력의 폭을 넓히고자 함

주요특징

꽃을 순식간에 피우는 풀색엄지 따뚜의 능력을 공유하여 꽃이 필요한 장소에 꽃을 피워보는 '특공대'가 되어보는 연극놀이



문화미디어 줄

동네 탐방 후 버려지는 물건을 상상취재하고 습득하여
이를 다시 고치거나 꾸며서 리사이클링 해보는 프로그램

우리동네 어린이 특파원

“ 단체소개

‘문화미디어 줄’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진, 미술, 멀티미디어 작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술이론 및 창작 활동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프로그램은 복합적인 미디어 매체들을 사용하여 피교육자에게 미디어, 미술, 사진, 음악, 패션 등의 다양한 관심을 심어주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진로 및 소질을 개발하도록 유도한다.



교육기간

2018년 3월 31일(토) ~ 11월 25일(일) / 10:00 ~ 13:00
1기 : 3월 31일 ~ 7월 14일 / 2기 : 8월 11일 ~ 11월 24일

교육장소

애플망고연습실(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136 B1)

교육대상

초등학교 3 ~ 6학년 20명 내외(총 40명)

교육강사

양재광(주강사/대표), 강재구(주강사), 오석근(주강사),
김은진(주강사), 장수만(주강사), 정진욱(기획자/사무보조)



기획의도

사당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현대미술에 기반을 둔 장기적 플랜의 미디어아트 교육과 리사이클링 체험을 함께해 보는 프로그램

우리사회 속의 고정관념을 깨어주며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환경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잣대를 심어주도록 하는 것이 목표

창작의 기쁨과 놀이의 즐거움, 공동 작업을 통한 협동심 등을 길러주며 아이들이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생활터전을 다른 시선으로 돌아볼 수 있게 함



주요특징

현대예술과 다큐멘터리 함께 체험

영상과 재활용 미술, 사진이 결합된 융합미술

(주)물나무 에듀

청소년들이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창작을 통한
미적체험과 함께 생활 속 예술을 경험하는 프로그램

마음의 눈 Camera eye

“ 단체소개

‘(주)물나무 에듀’는 전통흑백사진의 보존과 보급 및 전통 출판, 인쇄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문화의
공간이 된 미디어 예술의 맛을 지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예술 강사 및 작가들과 함께 미
디어 예술교육 전문 단체인 ‘물나무사진학교’를 발족하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을 병행하며 예술교육
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



교육기간

2018년 4월 7일(토) ~ 11월 25일(일) / 09:00 ~ 12:30

1기 : 4월 7일 ~ 7월 21일 / 2기 : 8월 18일 ~ 11월 25일

교육장소

녹번종합사회복지관(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1길 14-26)

교육대상

초등학교 3 ~ 6학년 20명 내외(총 40명)

교육강사

이상윤(주강사), 이진희(주강사), 서민주(보조강사), 박보경(보조강사),
김현식(기획자/운영총괄), 여범수(기획자), 이윤정(초빙강사)



기획의도

마음으로 바라보고, 눈으로 표현하는 예술 활동을 통해 일상과 나
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인식 확대

사진을 중심으로 하는 예술 활동을 진행하며, 예술이 독립된 장르
로서 구분될 때 보다 타 장르와 유기적 결합을 이루어 접목되었을
때 그 가치가 상승됨을 이야기 하고자 함

빠름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의 청소년들에게 Camera eye를
통하여 사회에 숨어있는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계기
를 만들어 주고자 함



주요특징

표현을 위한 기능 교육을 최소화하고 내면을 바라보고 소통하며
표현하는 능력 개발

주변과의 소통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공감하며 표현
하는 과정으로 확대

생활 속 주변에서 대상을 선정하고, 주제와 목표 설정에 따른 표현
활동 진행

예술 활동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역할 이해



북(BOOK)극곰 예술여행

책과 연극놀이가 결합되어 극이 놀이를 이끌어내고,
놀이가 극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북극곰예술여행

“ 단체소개

‘북(BOOK)극곰 예술여행’은 “예술교육 + 연극놀이 +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의 고른 인성발달 및 창의성 발달, 예술교육을 통한 학습능력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예술인들을 교육연극 제작에 참여시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



교육기간

2018년 4월 7일(토) ~ 11월 17일(토) / 09:30 ~ 12:30
1기 : 4월 7일 ~ 7월 7일 / 2기 : 8월 11일 ~ 11월 17일

교육장소

마포구립서강도서관(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65)

교육대상

초등학교 1 ~ 3학년 20명 내외(총 40명)

교육강사

김영현(주강사), 손지원(주강사), 이경구(주강사), 박진영(기획자)



기획의도

학교 교육으로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화예술 학습의 기회를 지역 내 아이들에게 제공하여 자존감 및 자기 표현력을 높이며 창의성과 문화 감수성을 배양해 행복감을 높이고자 함

체험 위주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소통하여 협동심과 사회성을 기르고, 다양한 감정표현과 문제해결 능력 등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해주하고자 함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동네를 돌아보며 자연스러운 대본작업을 통해 최종 발표회를 개최하여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이 사는 동네와 스스로에게 애정을 갖게 하자고 함

주요특징

다양한 책과 연극놀이를 통하여 자기표현, 사회성, 창의력, 자기효능감 등을 개발함

몸짓표현,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등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참여자의 특성을 살리고 다양한 자기표현법을 익힘



빌리브 아트

과학수사대가 되어 생태환경의 문제 인식 및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

에코아트 과학수사대 'T 사건 미해결 수사반'

“ 단체소개

'빌리브아트'는 지역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사회문화적이며 경제적 가치 향상을 위한 실천전략 제시 및 문화예술의 공공가치를 확산하고 있다. 장르 간의 크로스 오버를 통한 다원예술 융복합 창작 콘텐츠 제작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한 경험을 통해 폭넓은 교육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교육기간

2018년 4월 7일(토) ~ 11월 17일(토) / 10:00 ~ 13:00

1기 : 4월 7일 ~ 7월 21일 / 2기 : 8월 4일 ~ 11월 17일

교육장소

동대문구민체육센터(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67)

교육대상

1기 : 초등학교 3 ~ 6학년 / 2기 : 중학교 1 ~ 2학년 20명 내외(총 40명)

교육강사

박선하(주강사), 이지안(주강사), 이선영(주강사), 이종훈(보조강사)



기획의도

아이들 스스로의 힘으로 분석하고 받아들이고
해결하고 느끼는 과정을 경험하게 함

환경공해에 관해 스스로 원인을 분석하고 실험하
여 그것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사건 수사 과정을
통해 공예와 연극적 양식의 표현방식을 넘나들며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재구성함

과학과 예술을 활용하여 스스로 만든 사건을 추
적해가는 과정에서 나를 둘러싼 환경을 재인식,
재구조화 할 수 있으며 환경을 인식하는 폭이 넓
어지고 구체화됨

주요특징

아이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과학실험을 통해 지속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스스로 탐구 및 분석을
바탕으로 서로 상호소통을 하도록 함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스스로 다각도로 질문
하고 열린 시각으로 바라보게 함

학습자들이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장치를 마련함

거대한 연극적 스토리를 기반으로 아이들은 연
구하고 활동하면서 세부적인 스토리를 채워 그
들만의 이야기로 만들어나감

초등과 중등에 맞춰 수업의 난이도를 조절하여
기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양한 결과물이 나옴

사진 있다

청소년이 서로의 다양한 관심과 생각을 묻고
사진으로 표현한 것을 엮은 문화예술프로그램

펼쳐zine사진

“ 단체소개

‘사진 있다’는 자신을 표현하고 내면을 탐색하며 자신만의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진이 가진 특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한 분야와 대상에 대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 중이며 특별히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교육기간

2018년 4월 7일(토) ~ 11월 24일(토) / 10:00 ~ 13:00

1기 : 4월 7일 ~ 7월 21일 / 2기 : 8월 11일 ~ 11월 24일

교육장소

(사)함께가는은평장애인부모회 활동실(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1로 76)

교육대상

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총 40명)

교육강사

김세미(주강사), 이한나(주강사), 이은미(보조강사), 권예석(기획자)



기획의도

큰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인 청소년에게 자신을 표현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참여자 간의 이해와 소통을 통해 사회성 향상의 기회를 마련함

반복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삶의 재미와 활력을 제공함

각자 관심과 흥미를 발견하고 사진을 통해 표현하며 자신에 대해 이해하는 기회를 가짐

장애 형제를 둔 비장애청소년에게 주목 받을 수 있는 기획의 장을 제공하고자 함

주요특징

학업에 의한 반복되고 제한된 공간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사진을 매개로 다양한 주제와 연결해 새로운 시각 형성의 기회 마련

자기 탐색 및 표현 활동을 공유하고 소통과 공감, 이해의 기회 제공



(사)한국전통색실 문양누비보존 협회

전통공예 장인들과 자신의 공예품을 창작하고
작업 속 삶의 가치 만나기

‘숨씨따라 숨결따라’

“ 단체소개

‘(사)한국전통색실문양누비보존협회’는 색실문양누비가 가진 반복적이고 기하학적인 문양에서 나오는 현대적인 미감을 바탕으로 전통에만 국한하지 않고 현대에도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한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우리 전통예술을 쉽고 즐겁게 접근할 수 있는 체험 및 교육을 연구, 개발, 진행하고 있다.



교육기간

2018년 4월 7일(토) ~ 11월 24일(토) / 14:00 ~ 17:00

1기 : 4월 7일 ~ 7월 14일 / 2기 : 8월 25일 ~ 11월 24일

교육장소

색실문양누비공방(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12길 17)

교육대상

초등학교 5학년 ~ 고등학교 2학년 20명 내외(총 40명)

교육강사

이울리(주강사), 김윤선(주강사), 김기호(주강사), 박진영(주강사),
박선영(주강사), 신민웅(주강사), 임희진(보조강사), 이상아(보조강사),
김윤미(기획자), 김재원(특강강사)



기획의도

전통 장인의 이야기를 통해 친근하고 쉽게 우리나라의 전통·고유의 아름다움과 그 의미를 전달

다양한 소재로 자신만의 공예품을 창작하는 시간을 갖고, 각 소재의 물성과 다루는 법을 익힘

전시를 기획, 구성하고 직접 참여하는 시간을 통해 작가로서의 직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

주요특징

전통공예장인의 실제 작업공간을 방문해 장인의 이야기를 듣고 전통 공예기법을 배우는 통합된 과정을 통해 장인의 삶에 깃든 의미와 만나는 교육

전통 기법으로 만든 작업물에 자신의 색을 입혀 완성하고 전시회를 개최하여 작가의 창작 과정을 오롯이 경험하고 삶 속 예술을 실현



서울무용 교육원

가족이 함께하는 춤을 영화(WE media)를 통해
세대의 공감대를 형성

못말리는 짱구, 춤으로 말리다!

“ 단체소개

‘서울무용교육원’은 무용에 대한 폭넓은 인식을 확립하여 문화예술
교육의 소요를 창출한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무용이 혜택으로 다
가갈 수 있는 Community Dance를 실행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구성원은 커뮤니티댄스 철학을 기반으로 활동을 실천하고 통합예
술평교육을 위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한다.



교육기간

2018년 4월 1일(일) ~ 11월 18일(일) / 13:00 ~ 16:00
1기 : 3월 31일 ~ 6월 10일 / 2기 : 6월 17일 ~ 9월 2일 /
3기 : 9월 9일 ~ 11월 18일

교육장소

천호1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42길 59)

교육대상

초등학교 1 ~ 5학년 가족 20명 내외(총 60명)

교육강사

김옥희(주강사), 최창학(주강사), 박지영(주강사), 이은영(기획자)



기획의도

무용과 위미디어로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창
의적인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음

춤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자녀와 부모 간 세대적
갈등을 해소하고 이야기와 춤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능력을 발전시킴

주요특징

춤이 본능 속에 내재된 표현수단임을 경험하고
춤을 이용하여 가족 및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능
력을 키워 가족이 함께 춤추는 과정을 통하여 가
족의 개념을 확장

감정과 생각의 교류로 가족 구성원 간에 공감대
를 넓혀 건강한 가족상을 세우고 이야기를 재조
합 하는 과정에서 창의적 상상과 인성의 가치를
몸으로 체득해 위미디어의 감동을 가족이 함께
몸으로 표현하며 감동의 의미를 확장

춤이 인생의 표현임을 경험하여 스토리의 구성과
조합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창출하는 호모나랜스
의 욕망을 실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청소년들이 전문극장에서 뮤지컬을 올려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는 프로그램

뮤지컬 레시피

“
단체소개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성북청소년문화공유센터’는 청소년 문화 활동의 자율과 자치를 위해 설립된 공유 공간이자 성북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체험, 창작, 동아리 활동 및 다양한 청소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교육기간

2018년 4월 7일(토) ~ 11월 3일(토) / 13:00 ~ 15:00

교육장소

성북청소년문화공유센터(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6 다길 8-2)

교육대상

중·고등학교 전학년(총 25명)

교육강사

차지성(주강사), 송현우(주강사), 임소영(보조강사), 장원정(보조강사), 이수민(기획자)



기획의도

‘뮤지컬’을 통해 문화예술 소양을 키우고 문화를 향유하는 계기와 문화예술을 매개로 자신의 적성과 꿈, 끼를 찾아 자주적으로 행동하는 생활 태도 형성에 기여

전문화된 공연장에서 뮤지컬 공연을 올림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자존감 및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는 자리 마련

가능적이지 않은 융합예술교육을 시행해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 향상 및 자신을 탐구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터득해 ‘함께’하는 사회를 배우는 계기 마련



주요특징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뮤지컬 프로그램

또래 간 협력, 문제해결능력 및 소통하는 방법 등을 터득할 수 있는 전인교육 실현

지역의 문화예술인 및 협동조합과의 협업을 통해 마을에 대한 이해도 증가

전문 공연장의 최종 발표를 목표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 연출가, 작곡가, 작가, 배우 등 다양한 분야의 협업으로 프로그램 완성



소리 마당

즐겁게 익히는 국악기와 국악상식, 일상에서 활용하는 국악기
우리음악 원정대

“ 단체소개

‘소리마당’은 전 단원이 해당 악기 전공자이며 현재 국악예술사 또는 국악강사로 초, 중, 고에서 활동하고 있다. 교육생의 고민, 부진한 이유, 성취도 향상 방법 등, 다양한 교육적 기법과 상담기법, 관리능력을 갖추고 있다.

”



교육기간

2018년 4월 7일(토) ~ 11월 24일(토) / 10:00 ~ 13:00

1기 : 4월 7일 ~ 11월 24일

교육장소

서울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93길 47)

교육대상

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3학년 25명 내외(총 25명)

교육강사

최윤택(기획자/지휘), 김성희(주강사/타악), 박나나(주강사/대금, 이론), 박민선(주강사/가야금), 이수아(주강사/해금), 구경훈(주강사/피리)



기획의도

국악기를 접하는 청소년과 가족이 모여 음악적 양상부를 이뤄 사회적 인성 함양과 국악 상식 해설을 통해 우리문화예술의 교양수준을 높임

탐사 견학을 통해 팀원 간 화합과 단합을 기본 목표로, 가족 간 또래 간 특별한 정서 교류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

무대 경험을 통한 성취감과 우리 문화와 예술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해 성과를 극대화

발표회 준비를 통해 성취도 향상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술로 이웃과 사회를 행복으로 이끄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국악전도사로 성장하기를 기대

주요특징

양상부를 이루기 위한 필수요소인 배려, 협동, 양보를 강조하는 인성교육

주입식 강의가 아닌 참여자가 주체가 되는 토론식 국악 상식 강의

참여자가 직접 실습하며 이해를 돕는 입체식 강의

고학년과 저학년, 또래 간의 멘토제를 도입해 상호 교수하는 협동적 교육 현장

가정, 학교 등 어디에서나 타 악기와 어울릴 수 있는 악보 리딩, 합주 능력 향상

탐사, 공연, 재능기부 등을 통한 체험이 있는 프로그램

예술공동체 스케네

그림책을 매개로 다양한 문화예술체험활동과 가족놀이
꿈다락 - 그림책의 기적

“ 단체소개

‘예술공동체 스케네’는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와 사람에 대한 이해, 살아있는 즐거운 교감을 나누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곳이다.



교육기간

2018년 4월 7일(목) ~ 11월 24일(일) / 10:00 ~ 13:00
1기 : 4월 7일 ~ 6월 30일 / 2기 : 7월 28일 ~ 8월 25일 /
3기 : 9월 1일 ~ 11월 24일

교육장소

삼각산어린이도서관(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19길 34)

교육대상

1, 3기 : 초등학교 1 ~ 2학년(가족) /
2기 : 초등학교 3 ~ 6학년 20명 내외(총 60명)

교육강사

손희영(주강사), 박지원(주강사), 임연진(보조강사), 김희(기획자)



기획의도

가족놀이를 바탕으로 구성하여 자신의 내면에서 만족감을 느낄 때 생기는 자생적 원동력인 즐거움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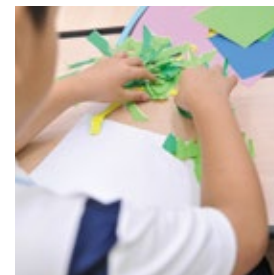
‘애착’과 ‘자존감’은 자녀와 부모 사이의 지속적인 소통과 교감 속에서 성장하므로, 그림책을 매개로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소재, 함께 교감할 수 있는 시간

감촉도서 만들기를 통해 가족 간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공감하며 자연스럽게 협동심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감정을 읽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음

주요특징

그림책은 간결한 글과 그림이 조화를 이룬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어린이와 성인이 함께 즐기며 협력관계를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교구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고, 느끼고, 움직이며 서로의 생각과 감정에 공감할 수 있도록 도움

그림책을 매개로 다양한 예술표현방식을 활용한 가족놀이와 감촉도서 만들기,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서로의 접촉을 통해 따라 움직이며 느끼게 하는 ‘교감’을 목표로 교육을 운영



문화예술공동체 신나다

청소년들이 힙합의 4가지 요소를 통하여
창작 과정을 경험하고 자신만의 예술을 표출

OPEN YOUR SWAG

“ 단체소개

‘문화예술공동체 신나다’는 인문학과 문화예술과의 연계를 중점으로 하는 단체로, 문화예술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문화예술의 토착화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그리고 문화예술을 일상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



교육기간

2018년 4월 14일(토) ~ 11월 24일(토) / 14:00 ~ 17:00
1기 : 4월 14일 ~ 8월 4일 / 2기 : 8월 11일 ~ 11월 24일

교육장소

서울시립창동청소년수련관(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69길 132)

교육대상

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20명 내외(총 40명)

교육강사

노상현(주강사/프로그램 진행관리, 랩, 작사), 조진규(주강사/비트, 작곡, 디제잉), 최동현(주강사/랩, 그래비티, 작곡, 녹음), 김원호(주강사/랩, 비보잉), 신광우(기획자)



기획의도

자발적 흥미 유도

청소년들에게 힙합이라는 소재는 스스로 흥미를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

다양한 예술체험

힙합의 4대 요소를 순차적으로 배우며 개인만의 특화된 적성을 찾아 자신감과 표현력을 이끌어 냄

올바른 대중문화 인식개선

힙합의 유래와 정신을 배워 자신의 주체성에 대해 성찰

건강한 취미와 직업적 발전

자신만의 예술성을 찾고 취미 혹은 전문적인 예술가로 향후 진로를 고려해 볼 수 있도록 유도

주요특징

아이들이 스스로 흥미를 느끼고 좋아할 힙합 수업에 참여하여 자발성을 가지게 함

그래피티를 통해 자신의 기호와 상징을 만들고 미적 감각과 상상력을 증진시킴

비보이를 통해 힙합 안무와 박자감각을 익혀 신체 활동을 극대화하고 에너지를 발산해 상대와 호흡하며 자신의 생각을 신체행위로 표현

디제잉과 MC를 통해 기존의 음악을 재창작하는 시간을 갖고 자신만의 힙합 음악을 프로듀싱해 창작능력을 향상

마지막 힙합공연으로 주체성을 가지고 예술을 표현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음

아츠컴퍼니 무아

세계의 문화를 신나는 예술 활동으로 체험,
여러 나라의 이야기를 화두로 콘텐츠 만들기

글로벌 어린이 엑스포

“ 단체소개”

‘아츠컴퍼니 무아’는 2013년 비영리 단체로 등록하여 사회적 역할 확립 및 학교와 사회, 그리고 지역을 연계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개발 및 연구, 실행하고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봉사 및 사회에 공헌하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서울문화재단 등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였다.



교육기간

2018년 4월 7일(토) ~ 11월 24일(토) / 10:00 ~ 13:00

1기 : 4월 7일 ~ 7월 21일 / 2기 : 8월 11일 ~ 11월 24일

교육장소

초안산숲속작은도서관(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60길 199)

교육대상

초등학교 4 ~ 6학년 20명 내외(총 40명)

교육강사

박안숙(기획자), 이혜경(주강사), 나수아(주강사), 한형민(주강사), 황은지(보조강사), 이지혜(보조강사)



기획의도

스스로 협업을 통해 이뤄 낼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하고 체험하는 동안 적절한 행동에 대해 적절한 대안을 선택하는 능력을 개발

결과물은 수업에 대한 표현을 자기적으로 가능케 하고 협업 활동으로 예술적 소통 능력을 향상
책과 친밀감을 형성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성취감과 적극 표현을 통한 창의성을 길러줌

타인과의 활동으로 대립이 있을 경우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는 것을 배움

주요특징

국제박람회를 통해 여러 나라의 예술 활동을 체험하고 여러 나라의 이야기를 화두로 창작활동을 진행하는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각국을 소개하는 홍보대사가 되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여러 활동을 통해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풀어가며 발표와 토론을 통해 인류애와 글로벌 리더십을 경험

모의 엑스포를 통해 세계화와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다른 문화와 민족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

민족의 전통의상과 세계지도를 제작하는 미술활동 등을 직접 체험하면서 개인의 상상력과 표현력을 발현 기회 제공

퍼포먼스를 구성하여 발표하면서 자연스럽게 소통능력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으며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의사소통의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음

아트 컴퍼니 노닐다

청소년들이 연극 놀이와 공연체험 및 공연 만들기
전 과정을 통해 자존감을 가지고 사회와 소통하는 프로그램
마음 담벼락 허물기

“ 단체소개

‘아트 컴퍼니 노닐다’는 문화예술교육과 공연 작업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간다.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며 특히 통합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가 있는 학령기의 청소년들에게 학교 안과 밖에서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참여하는 청소년의 눈높이를 맞춘 연극 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말’과 ‘행동’으로 ‘관계’를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체험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교육기간

2018년 3월 31일(토) ~ 11월 17일(토) / 10:00 ~ 13:00

1기 : 3월 31일 ~ 11월 17일

교육장소

변동3단지조합사회복지관 지하 1층 강당(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 208)

교육대상

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25명 내외(총 25명)

교육강사

김아라(기획자), 도희경(주강사), 장형선(주강사), 윤서정(보조강사),
김해정(보조강사), 유성주(보조강사), 허주미(보조강사)

기획의도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장애가 있는 학생들도 연극과 문화에 대한 욕구가 있고 이들에게 필요한 소통의 방법과 자발적인 표현방법을 매개로 하여 나아가고자 함

장애가 없는 청소년의 경우 공연과 무대에 대해 관심이 커서 그들의 미래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음

비장애 청소년이 장애 청소년은 '도움을 줘야하는' 대상이 아닌, 동일한 친구로 인지할 수 있도록 소통의 구조를 만들고자 함



주요특징

장애 청소년들과 비장애 청소년들이 연극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예술 수업을 통하여 서로 '다름'과 '다르지 않음'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함

연극 놀이를 통한 올바른, 자발적인 자기표현과 발산 및 소통을 이루어 냄

공연 만들기 과정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협동하여 목표를 이루어 내는 성취감을 고취함

청소년, 장애인들이 만드는 공연에 대한 선입견 해소 및 나의 이야기를 벗어나 공감할 수 있는 문학작품의 공연화를 통해 타인과의 공감대 형성 및 개인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음



알트

창의적 신체 탐구를 새로운 미디어 아트 장르인
'바이오 아트'로 표현하는 프로그램

땀지놀이 - 예술로 발견하기

“
단체소개

'알트'는 기능적 예술교육이 아닌 상호 학습의 예술 경험을 통해 삶·예술의 통합을 실천하고 예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시각예술기반 통합예술교육 단체이다.

”



교육기간

2018년 4월 7일(토) ~ 11월 3일(토) / 14:00 ~ 17:00
1기 : 4월 7일 ~ 7월 7일 / 2기 : 8월 4일 ~ 11월 3일

교육장소

아름꿈도서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8가길 19 2층)

교육대상

초등학교 4 ~ 6학년 20명 내외(총 40명)

교육강사

이승미(기획, 주강사), 송은선(주강사), 고은아(보조강사), 권영지(보조강사)



기획의도

기술과 자연, 미래를 연결하는 시간성과 환경으로서의 공간성을 자신과 연결 지어 생각해보도록 하는 미디어아트 교육 시행

몸은 생물학적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장소로 인간사이의 친밀감과 소통의 기본이며 생명의 존엄은 다름을 이해하는 방식임을 교육하고자 함

자신의 정체성을 신체에 투영하여 작품을 창작하고 스스로 세상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 함양

주요특징

새로운 미디어 아트 장르인 '바이오 아트'를 기반으로 한 로우 테크 (low-tech) 중심 미디어 아트 프로그램

기술과 환경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유연한 태도를 교육

과학기술과 예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과정을 즐겁게 경험



서울어바웃 아트센터

명화에 나타난 주제들을 인문학과 결합을 통해
세상을 창의력으로 바라보기

영화 플러스 생각발전소

“ 단체소개

‘서울어바웃아트센터’는 지역 문화의 창의적 발전과 지역사회의 소통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소외계층 및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 교육 전시 활동 및 문화 콘텐츠 개발과 지역사회의 소통을 전개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교육기간

2018년 4월 14일(토) ~ 11월 17일(토) / 14:00 ~ 17:00
1기 : 4월 14일 ~ 7월 28일 / 2기 : 6월 11일 ~ 11월 17일

교육장소

중랑구립정보도서관(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길 197)

교육대상

1, 3기 : 초등학교 1 ~ 2학년(가족) /
2기 : 초등학교 1~6학년(가족) 20명 내외(총 60명)

교육강사

손정화(주강사), 오지현(주강사), 박보석(특강자), 김나영(기획자),
서창애(보조강사)



기획의도

미술을 통한 인성교육

영화라는 교과목과의 연계고리를 전달하며 스스로 공감하는 스토리 텔링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공감대 형성의 소중함을 그림

학교에서 정해진 교육에서 벗어나 가족이 함께 연구하고, 결과물을 가지고 내 이웃과 소통하는 과정에 필요한 사회성과 배려를 함께 배우고 창의적 사고를 고양시킴

주요특징

영화를 통하여 생각을 발전시켜 오늘날 어린이 놀이문화에 인문학과 감성을 소중히 키워갈 수 있음

유행하는 기계적 로봇과 팽이들에게 없는 감성과 인공지능시대가 도래할수록 메마를 수 있는 정서의 안정과 인격의 소중함을 영화를 통해 함께 배양



교육기획 언니네책방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경험을 글로 풀어
한 권의 자서전을 완성하는 프로그램

책방 다녀오겠습니다!

“ 단체소개

‘교육기획 언니네책방’은 자기 삶을 소재로 작품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표현예술-글쓰기-독립출판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집단상담 형태로 진행한다. 자기서사를 가진 이라면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으며, 내 삶이 작품으로 완성되는 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치유 효과를 사람들에게 선사하고자 한다.



교육기간

2018년 4월 7일(토) ~ 11월 24일(토) / 10:30 ~ 12:30
1기 : 4월 7일 ~ 7월 21일 / 2기 : 8월 18일 ~ 11월 24일

교육장소

책방이음(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4길 12-1)

교육대상

중학교 2학년 ~ 고등학교 2학년(학교 밖 청소년) 20명 내외(총 40명)

교육강사

길도영(주강사), 김다희(보조강사), 윤나은(주강사), 진가을(보조강사),
성어진(기획자)



기획의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스스로 삶을 재해석하고 긍정적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도록 함

글쓰기 이전에 표현예술로 내 이야기를 풀어내보며 글을 쓰는 행위
가 재미있는 놀이이자 자기표현의 도구라는 점을 알려줌

나의 이야기가 하나의 예술작품이 되는 경험을 통해 삶 전체를 하
나의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함

주요특징

자기치유를 동반한 예술작품 창작을 목표로 함

내 삶을 한 권의 자서전으로 엮으며, 지난 나와 대화하고 현재의 나
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음

각자의 작품을 공유하는 과정은 서로 같고도 다른 삶을 이해하도
록 함



주식회사 우드락공작소

버려지는 자투리목재, 폐목재(파레트),
폐가구가 아이디어를 만나면...!!!

재활용목공교실

“ 단체소개

‘주식회사 우드락공작소’는 흥미위주의 목공 교육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작업인 목공의 특징을 배제하지 않고 느리더라도 깊이 있게 자연물을 느끼고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목공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지역주민과의 협업으로 정기적인 목재 나눔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목공 체험 재능기부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여성기업이자 (예비)사회적기업이다.



교육기간

2018년 4월 1일(목) ~ 11월 18일(일) / 10:00 ~ 13:00
1기 : 4월 1일 ~ 7월 15일 / 2기 : 7월 29일 ~ 11월 18일

교육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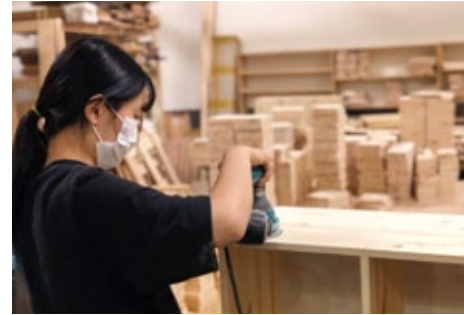
(주)우드락공작소(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95번지 지하 1층)

교육대상

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20명 내외(총 40명)

교육강사

유은정(주강사), 김민경(주강사), 김태희(보조강사), 아미라(보조강사)



기획의도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나무라는 매개체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과 긍정적인 자아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

자연을 대하는 존중심과 나무의 가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함

다양한 나무를 탐색하고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통해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실제 경험할 수 있는 실패와 도전을 배울 수 있음

지속적인 안전교육으로 다치지 않는 목공교육을 진행하고자 함

주요특징

목공 작품에 다양한 방법의 표현과 콜라보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융복합적인 문화예술교육으로 진행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과정을 현장에 적용해 봄으로써 목공도 문화의 한 축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계기 마련

목공을 통해 새로운 진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이십세기 비보이즈

비보이댄스와 디제잉 체험을 통해 또래 문화를
능동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또래문화댄스

“ 단체소개

‘이십세기 비보이즈’는 2002년 단체를 창단하여 정식 단체로 등록한 후, 더욱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다양한 공연과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다양한 재능과 인력, 인프라를 보유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자체 제작이 가능한 공연 및 교육 전문 단체이다.



교육기간

2018년 4월 7일(토) ~ 11월 10일(토) / 12:00 ~ 15:00

1기 : 4월 7일 ~ 7월 21일 / 2기 : 8월 4일 ~ 11월 10일

교육장소

복합문화공간 투에니션쥬리스튜디오(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로 55)

교육대상

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20명 내외(총 40명)

교육강사

정원호(기획자), 박진성(주강사), 임채훈(주강사), 은정훈(보조강사), 장서원(보조강사)



기획의도

청소년들이 저마다의 삶에서 사교성, 공동체 인식, 동화능력 등을 발달시키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 판단

매년 댄스 교육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의 관심이 비보잉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한 댄스체험으로 스트레스를 올바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돕고 자존감 향상과 예술 감성을 사유할 수 있도록 도움

본 프로그램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또래집단 내에서의 공동적 참여의지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봄

주요특징

청소년 또래문화 형성이 가능하도록 힙합과 비보이, 힙합과 디제잉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설명이 수업 내에 진행

또래집단의 소통 활성화의 가장 큰 중점으로 즐거운 신체적 활동으로 아이들이 땀 흘리며 신나게 춤을 출 수 있는 수업을 진행

힙합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음악 역사를 통해 비보잉의 정체성을 알려줄 수 있는 이론 수업과 실질적인 디제이 장비를 만지고 체험 가능한 실습 구성



재활용 공예진흥원

일상 폐품으로 캐릭터 완구 제작과 캐릭터 인형극까지
체험하는 융합형 교육

캐릭터 기반 재활용공예와 인형극

“ 단체소개

‘재활용공예진흥원’은 국내 최고의 친환경/DIY 공예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교육적 퀄리티가 검증된 업사이클 기반 공예, 인형극, 만화 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국정 교과서 등재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차별화된 구성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열정을 최대한 반영하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기간

2018년 4월 7일(토) ~ 11월 24일(토) / 13:00 ~ 16:00
1기 : 4월 7일 ~ 8월 11일 / 2기 : 8월 18일 ~ 11월 24일

교육장소

언니네작은도서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337)

교육대상

초등학교 1 ~ 6학년 20명 내외(총 40명)

교육강사

강연호(기획자), 김진경(주강사), 권찬욱(주강사), 황혜정(보조강사), 안란(보조강사)



기획의도

참여 아동 및 그 가정의 환경사랑에 대한 관심 고취와 함께 아동들이 다채로운 시각에서 예술을 향유하는 계기 제공

폐품이 주재료이지만 그 완성작은 전혀 폐품처럼 보이지 않는 매력의 재활용공예. 그리고 공예 완성품의 효용성을 높인 캐릭터 인형극의 만남

주요특징

창작 캐릭터 기반

아동들이 선호하는 귀여운 캐릭터로 참여 유도

업사이클 작업

인형극 구성물, 공예품을 환경 친화적 업사이클 방식으로 제작

다양한 참여영역

공예(캐릭터 장난감 제작), 인형극(성우/인형사/조연출/스태프 등) 장르에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참여·활동하도록 운영



조우

아동과 가족이 뜻밖의 예술을 경험하는
미술+무용+음악 가족 예술캠프

뜻밖의 예술_DAY CAMP

“ 단체소개

‘조우’는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의미,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사회적 역할을 깊이 성찰하며 설립된 단체이다.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 인간애, 사명감, 진정성을 품은 단체 구성원들은 각 예술분야의 전문성을 가지면서도 사람과 사람, 예술과 예술, 사람과 예술이 만나는 지점을 고민한다.



교육기간

2018년 8월 2일(목) ~ 8월 5일(일) / 09:00 ~ 20:00

1기 : 8월 2일 ~ 8월 3일 / 2기 : 8월 4일 ~ 8월 5일

교육장소

서울무용센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명지2길 14)

교육대상

초등학교 4 ~ 6학년 가족 30명 내외(총 60명)

교육강사

김서진(주강사), 김예진(주강사), 이도훈(주강사), 오슬기(주강사),
송재순(주강사), 김지연(주강사), 송혁(주강사), 이강일(보조강사),
정두수(보조강사), 김은진(보조강사), 김영랑(기획자)



기획의도

예술을 통해 가족들이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우리 일상의 무엇이든, 작은 행위까지도 예술이 될 수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캠프를 마친 후에는 참여자들의 생각과 생활에 작은 변화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함

시각예술, 움직임, 소리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예술의 즐거움과 풍요로움, 높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함

주요특징

미술+무용+음악의 통합

본능적인 몸의 움직임과 드로잉, 설치 등의 시각 예술,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소리, 세 분야가 통합된 자유로운 활동. 시각적 자극을 몸의 감각으로, 일상의 소리를 그림과 소리로 경험하는 등 통합적 예술을 경험

우연성을 주제로 한 활동

우연적 기법을 이용한 작품과 활동들이 주제가 됨. 주변의 사소한 것들이 예술로 전환되며 예상치 못한 멋진 예술작품이 탄생되는 과정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예술을 더욱 친숙하게 느낄 수 있음. 참여자들은 미술, 무용, 음악을 경험하며 우리 주변의 무엇이든 예술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됨

다양한 활동 및 교육매체 활용

캠프형식의 프로그램으로 예술 작품을 통해 구상, 제작, 감상, 전시, 퍼포먼스 등 다양한 형태의 예술 활동을 하며 미술재료, 소도구, 몸, 놀이교구, 테블릿pc 등의 교육매체를 활용함

티라트 (Trart)

8~10세의 아동이 아빠의 이야기가 담긴
다양한 체험을 통해 가족에 대한 의미 가치 찾기
오 마이 프렌디

“ 단체소개

‘티라트 Trart’는 문화예술교육 경력이 많은 예술가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노동을 위한 그리기’(2016, 샘표스페이스), ‘내일을 위한 시간, 20’(2015, 금나래 갤러리) 등의 작품을 발표하였으며, 다양한 장르를 융복합한 문화예술 활동을 시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육기간

2018년 4월 7일(토) ~ 10월 20일(토) / 10:00 ~ 13:00
1기 : 4월 7일 ~ 6월 16일 / 2기 : 6월 23일 ~ 8월 19일 /
3기 : 8월 25일 ~ 10월 20일

교육장소

흥부네 그림책 작은도서관(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 1길 30)

교육대상

초등학교 1 ~ 3학년(가족) 20명 내외(총 60명)

교육강사

임진세(기획), 신하정(주강사), 신우(주강사), 황정현(보조강사),
방승조(인물 캐릭터 특별강사)



기획의도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 특히 아빠가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내용에 참여하도록 함

가족 구성원을 개별적으로 이해하고 가족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가는 과정을 겪으며, 소외된 '자리'에 있는 구성원의 마음을 보듬기를 기대

주요특징

아빠와 아동이 함께하는 신체 활동으로 친밀감을 높일 수 있음

아빠에 대해 역사, 신체, 물건, 일상 등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음

신체활동, 드로잉, 사진, 캐릭터화, 마임 등 매체를 변화하여 주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함



(주)포토 브릿지

발달장애 청소년과 부모가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는 프로그램

별을 삼킨 아지트

“ 단체소개

‘(주)포토브릿지’는 보살핌 결여, 게임 중독, 일탈 행동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사회적 자폐’를 치유하기 위해 자기 정체성과 주변과의 관계성 회복에 초점을 맞춘 대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이다. 건전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성장과 장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 교육기간 완료 후에도 커뮤니티 운영과 플랫폼 참여를 통해 지속적인 멘토링 진행과 여러 실천 프로그램에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기간

2018년 4월 7일(토) ~ 11월 17일(토) / 14:00 ~ 17:00
1기 : 4월 7일 ~ 7월 14일 / 2기 : 8월 18일 ~ 11월 17일

교육장소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 신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백련사길 39)

교육대상

발달지체 장애 청소년 10명 내외(총 20명)

교육강사

서지형(주강사), 심명진(주강사), 박지선(주강사), 김현정(주강사),
정상훈(보조강사), 박지민(보조강사), 심유진(보조강사), 김재유(보조강사),
김지혜(보조강사), 정원석(보조강사), 김소연(기획자)

기획의도

발달장애 청소년의 눈과 귀로 그들이 원하는 아지트와 같은 공간을 미술과 사진, 영상을 도구로 활용해 찾는 것을 목표로,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스스로 행복과 안락함을 느끼고 공간에 대한 예술적 시각과 해석으로 공간을 만들

만들어진 공간은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공유공간에 전시되며 일반인들이 공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단순한 예술기능 교육이나 창작활동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정서적 치유와 보다 적극적으로 세상과의 소통을 목표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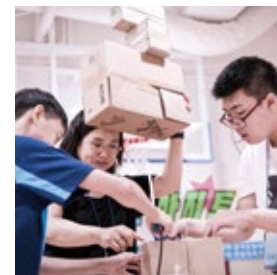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보호받는 대상이 아닌 사회와 공동체를 바꿔 나가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함

주요특징

발달장애 청소년이 미술, 사진, 영상 활동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는 공간을 찾도록 함

주거/활동 지역에 대한 시선을 담은 시각, 청각, 공감각이 활용된 전시물을 제작하여 지자체의 공유공간에 전시

전시물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어 예술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나아가 정책과 행정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움



문화예술교육 연구소 플레이 (PLAY)

미디어를 통한 소통, 공감, 지역사회 친밀감 프로젝트
미디어로 통

“ 단체소개

‘문화예술교육연구소 플레이(PLAY)’는 아동·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미디어교육을 통하여 기존의 정형화된 예술교육에서 나아가, 좀 더 창의적이고 학습자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습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교육자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며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 공헌과 문화예술 네트워크 확장에 힘쓰고 있다.

”



교육기간

2018년 4월 7일(토) ~ 11월 24일(토) / 09:30 ~ 12:30
1기 : 4월 7일 ~ 7월 28일 / 2기 : 8월 11일 ~ 11월 24일

교육장소

수명산작은도서관(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 1길 131)

교육대상

1기 : 초등학교 1 ~ 3학년 /
2기 : 초등학교 4 ~ 6학년 20명 내외(총 40명)

교육강사

김상규(주강사), 최정영(기획자), 이지현(주강사), 박정연(보조강사)



기획의도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융합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며 문화적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긍정적으로 사고하며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향유함

맞벌이 가정의 아이 돌봄 문제를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 콘텐츠로 건전한 사고 이끌어내기

문화적 수혜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다양한 문화 예술 분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주도적으로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을 목표

건전한 여가선용과 올바른 인격형성,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 향유 기회 제공

주요특징

나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기록해 올바른 사고와 소통,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놀이를 통해 상상력, 창조적 발상을 키워 흥미유발로 자기 주도적 학습 실현

매시간 다른 주제로 자아정체성의 발견, 집단 내 친밀감 조성, 사회성, 협동심을 길러줌

자신의 생각과 이야기를 영상에 담아 영상만이 갖는 소통의 방법과 특징을 이해하여 긍정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움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고 예술장르를 융합해 표현 방법의 다양성을 이끌어내고 개개인의 강점, 창의성의 발견, 개인이 가진 잠재력을 이끌어 줌

사단법인

한국코다이협회

세상의 모든 소리를 나무로 풀어가는 착한 예술활동
다다목선(多多木善)

“ 단체소개

‘사단법인 한국코다이협회’는 비영리 전문예술 법인으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음악, 공예, 사진, 애니메이션, 연극, 뮤지컬, 영화, 국악 등의 예술 교육을 수행해 온 단체로 융합 예술프로그램 연구, 교재제작, 강사파견 등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공연, 세미나, 심포지엄, 페스티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기간

2018년 4월 7일(토) ~ 11월 18일(토) / 10:00 ~ 13:00
1기 : 4월 7일 ~ 7월 21일 / 2기 : 8월 18일 ~ 11월 18일
남가좌1동 주민센터 강의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모래내로15길 37)

교육장소

교육대상

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1학년 20명 내외(총 40명)

교육강사

조흥기(기획/총괄대표), 백설희(주강사), 김숙경(주강사), 권혜성(보조강사), 박은주(행정)

기획의도

나무로 악기를 제작하는 즐거움을 체험하고, 나무를 통해 소리가 나는 이치를 깨닫고 내가 만든 나만의 악기로 연주도 하는 프로그램

음악과 목공예를 융합한 창의적 활동으로 나와 다른 너의 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길을 찾음으로 또래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음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예술의 생활화를 이루고 보람찬 여가 활동을 유지



주요특징

목공예와 음악을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소리를 나무로 표현하고 악기를 만들어 직접 연주해봄으로써 악기의 구조와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음악에 대한 관심을 높임

나무를 통해 소리가 만들어 지는 이치와 방법을 깨닫고 이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악기를 직접 제작해 보고 소리 내어 연주해 보는 체험활동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고 예술장르를 융합해 표현 방법의 다양성을 이끌어내고 개개인의 강점, 창의성의 발견, 개인이 가진 잠재력을 이끌어 줌



재단법인 어린이공연문화재단 행복한 아이

어린이들이 예술의 다양한 장르를 연극을 통해 경험하고,
창의적인 예술가가 되어 보기
**주말엔 나도 예술가!
‘빛으로 그리는 예술극장’**

“ 단체소개

‘재단법인 어린이공연문화재단 행복한 아이’는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어린이들의 행복한 삶과 권리존중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실천하고 있다. 그 실천을 통해 건강하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립하여 문화예술적인 환경조성과 인식변화와 가치에 대한 확산을 위해 나아가고자 한다. 어린이들과 더불어 어린이들을 위해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는 대상층을 위한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들과 교류사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



교육기간

2018년 4월 7일(토) ~ 11월 24일(토) / 10:00 ~ 13:00
1기 : 4월 7일 ~ 7월 21일 / 2기 : 8월 11일 ~ 11월 24일

교육장소

지샘터 올림픽공원도서관(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스포츠비즈홀 1층)

교육대상

1기 : 초등학교 2 ~ 3학년 /
2기 : 초등학교 4 ~ 5학년 20명 내외(총 40명)

교육강사

고민정(주강사), 이유정(보조강사), 김효선(보조강사), 조경미(기획자)

기획의도

연극체험을 통해 몸과 마음의 다양한 감각을 이해하고, 다채로운 방식의 예술 언어를 만들고 표현하는 것이 목표

넘치는 에너지를 놀이를 통해 분출하고, 몸을 이용한 활동으로 다양한 예술표현 방법을 모색

자기중심적 성향에서 주변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되는 특성에 따라 협업을 시도

공연 발표 시 객관성을 갖고 관객에게 이야기를 전달하여 연극의 창의적인 전체 과정의 결실을 맺도록 유도

연극체험 과정에서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자연과 역사 등 사회적인 관심을 이끌어내어 스스로 예술의 즐거움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함



주요특징

연극 안의 다양한 예술 분야를 경험

교사가 주축이 아닌 참여자들이 주체가 되어 공동체 의식을 이해하고 서로 생각 나누기와 문제 해결을 통해 창의적인 예술가로 성장

전문 강사진이 각 영역의 예술성을 발휘, 통합예술교육으로 감각을 일깨워 심화활동 촉진

단순 설명은 지양하고, 개성 있는 이야기를 전개하도록 유도하며 놀이로 에너지 발산 및 상상력을 독창적인 표현으로 개발



PART 3

좌담회

1. 2018 서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돌아보며

110



2018 서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돌아보며



2018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단체 성과 좌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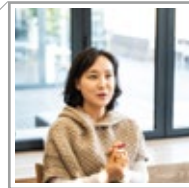
일시	2018년 12월 1일(토) 오전 10시
장소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001테라스
진행자	제한정(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겸임교수)
참석자	고민정(재어린이공연문화재단 행복한아이), 길도영(교육기획 언니네책방), 이세라(예술교육창작터 달집), 이호상(책공작소 맘껏), 정상훈(쥬포토브릿지)



제한정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제한정입니다. 현장에서 뵈는 분들도, 처음 뵈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국립립기관에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3년 넘게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업을 진행했던 것들의 어려움이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선 어떤 현실의 문제들을 서로 해소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선 어려운 것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예술교육창작터 달집 대표로 있는 이세라라고 합니다. 무용과 시각예술이 융합된 예술교육을 하고 있고, 미적 체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어린이도서관과 MOU를 맺어서 운영하다보니 '모집이 너무 어렵다'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실감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차상위 계층을 모집하는 일은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꿈다락이라는 사업 자체가 아이들에게 예술로 흥미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에 대한 노력이 아니라, 차상위 계층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세라



정상훈

저는 '포토브릿지'라는 기업 이름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사진을 가지고 아이들과 세상을 연결하고자 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 대표 정상훈입니다. 저희는 반대로 참여 대상 자체가 장애아동이다 보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서대문 장애인학부모회와 협력하여 진행했어요. 그래서 모집보다는 강사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이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아이들 10명과 수업을 진행하기엔 주강사 1명에 보조강사 2명으로는 힘이 들어요. 인건비 문제로 자원봉사자를 구해서 아이들을 케어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장기적인 관계를 갖고 친해져야 되는데 사람이 자주 바뀌게 되면 아이들이 당황하다보니 어려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책공작소 맘껏은 비영리 단체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미술, 글쓰기 등 다양한 전공이 있는데 저는 환경을 전공해서 아이들과 자연 바라보는 수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올해 처음 꿈다락에 참여하여 익숙치 않은 일들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잘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길꽃어린이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덕분에 참여자 모집은 쉬웠지만 참여자 중 차상위 계층을 구분하는 것은 역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운 좋게 한 가정의 어머니가 일본사람이시거나 하는 경우로, 겨우 원원수를 채워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호상



제한정

사실 저희가 꿈다락을 진행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건 보험 들거나하는 경우인데, 차상위 인증을 위해 정보를 받아야 한다는 게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어서, 활동하실 때 '나는 예술가다' 혹은 '나는 교육자다' '나는 이것의 전문가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 제일 방해가 됐던 것들, 혹은 제일 도움이 되었던 것들을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교육기획 언니네책방의 대표 길도영입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팀과 조금 다를 수 있는 것이, 정서적인 건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글쓰기를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글쓰기가 예술적으로 애매한 측면이 많아요. '우리는 예술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으로 아이들을 만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 문학, 그리고 예술성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받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그 예술이라 함은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는 예술가가 아닌 것일까? 아닌데 우리도 계속 글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 가치관이 계속 충돌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길도영



길도영

그리고 또 하나의 고민은, 수업 대상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삶의 스토리를 우선하고 글을 쓰도록 하고 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나중에 결국 한계가 왔어요. 결과물로 책이 나와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것을 어디까지 푸시업을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참관하며 예술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너는 이런 것 같아.' '너는 좋은 것 같아.' '나쁜 것' 이런 것 없이 판단하지 않고 피드백을 준다는 점이었어요. 엄청난 신뢰가 축적되지 않고는 나누기 힘든 얘기를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꼭 어떤 업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의 방식인 것 같아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생산의 측면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주일에 2시간 만나서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까 하는 과제가 남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브릿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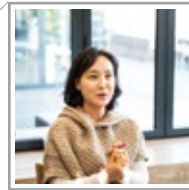
제한정

1기 했던 친구가 2기 때 그대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다시 또 하고 싶다고, 결국 참여하지는 못했는데 마음이 불편했죠. 공간이 확보되고, 이 친구들과 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다른 예산, 장기적으로 이것을 보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한 어려움이 항상 있었어요.



길도영

작년에는 한 단체가 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어서, 두 개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가 올해도 3학년이었던 아이들이 4학년 때 다음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올해에는 단체가 한 사업밖에 신청이 되지 않아 연속성이 없어졌어요. 저학년 아이들과 고학년 아이들이 연계되어 수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세라

우리의 과제가 양적 팽창, 정량적인 것의 '몇 명'이었다면, 이제는 한 아이가 어떻게 문화예술을 꾸준히 하게 혜택 받을 수 있는가가 화두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한정



정상훈

정체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과물이 나오고 이것을 공유할 수 있는 형태(전시나 도록)를 만들려다보니까 거기에 부담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술적인 행위를 하면 사실 아이들과 경험해 본 것으로 만족하면 되는데, 이것이 완성물 형태로 나와줘야만 그 성과물을 공유할 수 있다는 그런 게 느껴지니까... '교육자냐, 예술가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우리가 행정가냐, 아니면 진짜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하는 그런 정체성에 빠지는 거예요.

저희 재단은 어린이 문화사업 위주로 교육 프로그램이나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해서 꿈다락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가 어떤 사람으로 아이들과 만나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지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은 연극 대본 없이 발표회를 진행했는데, 그 이유가 작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대사에서 못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서였어요. 그냥 상황을 주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면 아이들은 충분히 연기나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아티스트이고 너희도 아티스트다'라는 그런 관계로 만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차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 것 같아요. 긴 호흡을 아이들과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리듬을 맞추는 것이 조금 고민거리이고 숙제였던 것 같아요.



고민정

주제를 설정하고, 매일매일 아이들과 지내다보면 이벤트처럼 너무 재미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이어지는 것인가.' 15주차든 16주차든 관통하는 흐름이 뭘까가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커리큘럼이나 진행상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한정

시각예술과 무용을 접목하기 위해 '공간과 움직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진행했어요. 오랫동안 같이 호흡을 맞췄던 사람들이라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문제가 없고 키워드를 정하고 키워드에 맞는 작품을 정하는 것을 고민하였어요.



이세라



이호상

저희는 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소나무 숲에 소나무 묘목을 심고,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도 가서 관찰할 수 있게. 2~3주에 한 번씩 산에 가서 나무에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관찰일지도 쓰고 했어요.

아이들의 삶에 따라 매번 같은 프로그램, 1기와 2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 삶에 묻어나는 것이 다르고, 니즈나 성향도 다르니까요. 자연스럽게 1기와 2기의 프로그램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데 드는 재료들까지 달라 지다보니 계속적으로 수정이 필요했어요. 그런 순간들마다 진짜 이것은 '행정가인가?' 그렇다면 행정에 드는 시간이 이렇게 많은데, 또 임금은 수업하는 시간별로 주고 거기에서 오는 혼란이 많이 있었어요.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도 어렵구요.



길도영

어떤 때 느낌이 우리가 정부의 돈을 빼먹으려는 예비 범죄자인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가장 기본적인 틀만 잡고 진짜 잘못된 사람 잡아내서 일벌백계를 하는 식으로 해야지, 모든 사람들을 다 그 틀에 가둬놓고 모든 기준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놓은 다음에 이제 안심해도 되겠다 하는 것은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 저는 잘 하는 팀이 있고 또 기대에 못 미치는 팀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피드백이 별로 없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환정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도 꿈다락을 잘 모르니까, 문제점들이 초반에 막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평가위원분들이 오셔서, 문제점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이 단체가 여기서 잘 할 수 있을지를 얘기해 주시는 것이라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반대로 기존에 오래 했던 단체들은 후반에 한번만 나오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씩 나오는 것보다, 그냥 한 번 오셔서 딱 그 얘기만 들어도, 그동안 1년 오면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얘기해 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세라



정상훈

저는 처음에 선정되고 컨설팅 받았을 때 좋았는데, '아, 그분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하고 무슨 관계를 가지나보다.' 했는데 그것으로 끝이더라고요. 처음 하는 단체들은 궁금한 것도 많고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은데, 일종에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서 아쉬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꿈다락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몇 분 안 계신니까 솔직히 행정적인 것 외에는 여쭙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아쉬울 때, 궁금할 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멘토가 한 분이 계셨으면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뵈게 돼서 저도 반가운데, 새로운 것도 많이 듣고 하거든요. 요즘에 Peer mentoring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동료들끼리 궁금한 것 물어보면서 문제 해결하고, 그러면 몇 개의 그룹끼리 한데 묶어서 최소한 상반기에 한 번이라도 '우리 힘들었던 것 뭐예요.' '이런 것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Peer mentoring이 중요한 것이 심사하시는 분들은 지원자는 아니 다보니 e나라도움 같은 시스템은 잘 모르거든요. 규칙들도 몇 년마다 바뀌니까. 같이 사업을 하는 분들끼리 서로 소통이 가능하다면 훨씬 더 유의미한 네트워킹 창구가 될 것 같아요.



제환정



정상훈

저희가 참여하는 사업 중에 서대문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서대문구에 있는 단체들이 계속적으로 같이 작업을 해오다 보니까 서로 긴밀하게 연합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서로 간에 동료의식 같은 것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관계 맺기만 이루어지면 재단에서 굳이 통로를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대표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하면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안면이 있으니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2012년 여가문화 중심으로 시작되어 많은 변화의 시기가 있었잖아요. 워딩도 업데이트 되어야겠지만, 우리가 하려는 역할들도 시대에 뒤쳐질 수 없는 변화의 과제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것들을 문화예술로 채워줘야 되겠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와 같은 비전들이 있을까요?



제환정



이세라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말을 안 해요.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저희는 말씀드렸지만 발문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아이들 생각을 꼬집어내는. 아직도 생각이 나요. 말을 안 하니까 그 아이의 생각을 꼬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5차시 들어가면서 그 아이가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이 작품은 이런 색깔이 보여요.” 색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환호성을 쳤어요. 마지막 10차시에 가니까 아이가 자기 생각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예술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되게 중요한 영역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거든요. 이런 사명감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일단 또래 친구들과 같이 나가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부모님들과 어디 놀러가거나 여행 갔던 경험들이 있는데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장소가 PC방밖에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 전에는 학교 같은 교육기관이든 아니면 가정에서 또는 다른 사회기관에서 했던 놀이라는 것들이 사실 예술적 체험에 다 기반했던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해주는 곳이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게만 그 시간을 보낸다고 하면 그 친구들에겐 좋은 기억이 될 것이고 그것이 예술적인 체험으로 직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즐겁게 보내는 것이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상훈



고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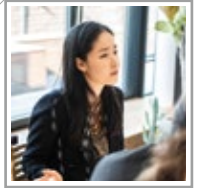
저도 이런 게 너무 궁금해서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요즘 아이들은 연극에 대한 경험이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첫날 딱 들어오자마자 ‘연극이란 무엇일까?’를 적게 했어요. 보통 ‘즐기는 것’ ‘무대 위에서 표현하는 것’ ‘재미있는 것’이라는 위주로 꼭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마지막 공연을 끝내고 아이들한테 다시 한 번 적게 하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것을 추가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파트 특성상 수업 안에서 조그맣게 계속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발표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아요. 다른 친구들을 보며 ‘이렇게 해서 나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재미있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라든가 긍정적인 발견 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토론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무대에서 무엇을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길도영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는 예술을 뭐라고 생각했던 것일까?’가 정리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경계를 안 지었던 것 같아요. 애초에 아이들의 삶 속에 있는 이야기를, ‘너희가 표현하기만 해도 그것은 예술이 될 수 있어.’라고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꿈다락의 과제 중 하나로 ‘아이들의 범위를 어디까지 지을 것이냐.’하는 문제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25세까지가 청소년이에요. 요새 20대 대학생들이나 혹은 대학교를 가지 않는 아이들도 이 우산 안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꿈다락 프로그램이 학령기 아동과 가족, 이렇게 정의되다 보니 거의 대부분 10살 안팎의 어린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까지로 제한이 많이 되더라고요.



전환정



길도영

저희는 정말 그런 요구 많았어요. “20살인데 하면 안 돼요?”라는 요구가 너무 많아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지금 겪는 것이 20대 초반에 겪는 것과 사회에 나갈 때 어려움이 거의 비슷해요. 그냥 연장선인데... 그렇게 거절한 것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항상 교육 프로그램에서 미스매치되는 부분들이, 교육 수요자하고 또 실제로 교육을 수행하는 단체하고 연결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수혜를 받는 대상이나 또는 교육을 신청하는 분들은 정보를 갖고 있고 이분들은 항상 기회가 열려있죠. 반면 그런 기회가 차단되어 있는 분들은 아무리 우리가 찾아다녀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훈



전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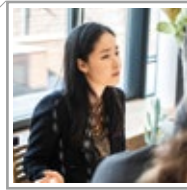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가족 프로그램들이 물론 있지만, 부모님이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가시고, 그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부모님이신 거잖아요.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나 사각지대 같은 곳, ‘어떻게 하면 진짜 필요한 곳에 꿈다락이 더 손을 뻗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하시면서 ‘이런 것까지 커버 되면 좋겠다.’ ‘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까지 지원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19살에서 끝나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정상훈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강사분들 중에서 몇 년간 계속하셨던 분도 계시고, 보조 강사분 중에서도 경험이 짧으신 분도 있는데, 생각 외로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과 부딪치는 문제들이 예상치 못하게 많이 벌어져요. 어디까지가 강사가 해줘야 되는 부분인지 경계선이 모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이들끼리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요즘에 성 관련된 부분들도 있다 보니... 그러다 보면 부모님들의 기대치는 그 시간을 풀로 꿈다락 단체에서 다 책임을 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다보니 단체와 학부모님들 간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는 부분도 있어요.

보호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뭔가 프로토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이고, 여기까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Teaching Artist인데, 내가 아티스트가 되기 너무 힘든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환정



이세라

저희는 한 차시 프로그램을 '보이는 숨바꼭질'이라는 제목으로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작은 발표회 형식으로 진행해요. 그래서 참관은 그때만 하시고 다른 수업은 끝날 때 데리러 오시라고만 말씀드려요. 일단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선에서는 부모님들의 요구는 들어드리고, 그 대신 수업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을 터치하는 것은 'no.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로 정했어요.

저희는 수업이 끝나면 바로 그날 평가회의를 하는데, 저희는 내부에서 아이들 모니터 평가지를 만들었어요. 아이들 수업 중간에 쓰는 평가지, 아이들 말하는 것, 토론, 행동을 그냥 날 것 그대로 써내는 것들을 보고 혹시 이 부분에서 아이들이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소외된 부분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체크하는 그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제환정

우리의 역할이 물론 보육의 영역을 아주 뺄 수는 없지만 보육이면서 아티스트이면서 Teacher이면서 너무 멀티를 해야 되니까, 사실 그것을 하느라 진짜 중요한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기 규범이 팀별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내부에서의 어떤, 특히 신규단체 같은 경우에 기준도 정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올해 프로그램 하시느라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도영

마지막으로 건의 드리고 싶었던 것이, 신규 단체들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특히 회계 관련해서도 그렇고 애초에 구조부터 처음 접하는 것이라서 너무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선물을 챙겨왔는데요. 저희 마지막 수업이 20살에 나에게 편지 쓰는 활동이었고, 그때 아이들이 쓴 문장들을 하나씩 따와서 공책을 만들었어요.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 "스무살의 나에게 쓴 편지. 내가 곧 갈게, 행운을 빌어."



2018 서울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결과자료집

발 행 인	김종휘
발 행 일	2018년 12월
발 행 처	서울문화재단
홈 페이지	서울문화재단 www.sfac.or.kr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www.e-sac.or.kr
문 의	02-3290-7427~8
기획제작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편집·인쇄	(주)상상가가 02-322-0758 http://www.ssgg2000.com

본 자료집은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하면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
단, 영리적 이용과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